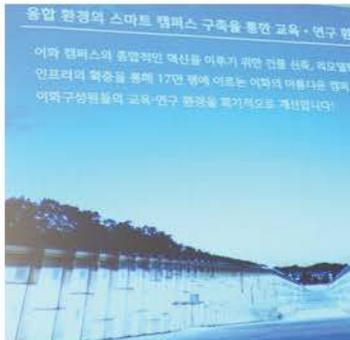


이화동창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2014년 겨울 제137호



이화동창

2014년 겨울 제137호



- 02 > 겨울의 시 우리 어디에 서 있어도 | 김현자
- 03 > 새해에 전하는 말씀 세계 속의 큰 빛, '이화' 재도약을 염원 | 우복희
- 04 > 2014 이화인의밤 행사 세계 명문으로 우뚝 설 모교 '이화' 와 함께
- 08 > 이화인상 수상 소감 세상에 빛이 되는 당당한 이화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이인숙
- 10 > 신년 기획특집 이화비전선포식을 보고
- 16 > 아름다운 기부이야기 사랑하는 아내 이름, 이화의 벽에 영원히 남기다 | 안상수 김덕재
- 20 > 기획 시리즈 노교수와 사랑하는 제자들 | 음대
- 24 > 2015 이화 유망주 인천 아시아경기조직위원회 도핑관리 담당관 이경언 | 이경옥
- 26 > 기획 르포르 세계인이 놀란 친환경 첨단 지하 캠퍼스 ECC
- 30 > 이화여대박물관 소식 동창을 위한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및 특강
- 32 > 알아두면 유익해요 세계는 좁고 감염병은 가까이 있다. 백신으로 이겨냅시다 | 김경호
- 34 >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나이지리아 | 손은영
- 36 > 총동창회 소식
- 39 >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이화인들의 추억 되새김 3박 4일 | 제갈숙경
- 40 > 대학(원) 소식
- 42 > 과 · 학부 소식
- 50 > 국내 · 해외지회 소식
- 60 > 모교 소식
- 64 > 동창소식
- 67 > 후원이사회비납부자 명단
- 68 > 연회비 납부자 명단
- 73 > 해외에서 보낸 편지 30년 만에 다시 부른 교가에서 깨달게 된 '이화 정신' | 최미영
- 74 > 축하합니다 김지혜 이선희 이공주 윤금진 윤주경 이명선 유인화 오명희 천현순
- 76 > 동창이 펴낸 새 책



편집위원

조종남(의학75) | 박유나(도예81) | 조경원(교육75) | 박경임(식영73) | 김효신(의학84)
유영선(신방75) | 김선주(불문65) | 백수경(신방79) | 김경은(영문79) | 박경희(신방90)

2014년 겨울 제137호 비매품 | 발행 · 2015년 1월 10일 | 발행인 · 조종남
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서울시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전화 02-3277-3386 · 3387

E-mail : ewhaalum@ewha.ac.kr

편집 · 도서출판 문예바다(02-744-2208) | 디자인 · 박래후편집공방 www.raehoo.com 02-743-7432

인쇄 · 독일인쇄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5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겨울의 시

우리 어디에 서 있어도

김 현 자

국문66

시인,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국문과 명예교수

저서/아침빛 길의 시학,

시와 상상력의 구조, 한국현대시 읽기,

한국시의 감각과 미적 거리,

현대시의 서정과 수사학의 다수

빛과 사랑의 만남이여라

어둠을 뚫고 오는 여울과 같이
그대 처음 우리 앞에 이르렀을 때
따뜻하고 형형했던 눈빛을 기억하네

날마다 일어서는 아침을 향하여 그대는
부동의 그 높은 대강당 성문(城門)으로
하나씩 솟구쳐 오르는 날개를 달아주고

도서관 책갈피 사이에 숨긴 노래
가장 깊은 살속에 담아내려오는 길에
하늘의 노을과 지상의 불빛이 하나가 되어
들려주던 우주의 응답

우리 어디에서 있어도
늘 마음속 꺼지지 않고 빛나는
이화의 불빛

하루에도 몇 번이고 그리움처럼 기차는 지나가고
스스로 일어서는 서늘한 바람
한 백년 섬겨온 지혜가
산초 잎처럼 푸른 곳

우리에게 남아
높은 곳 날갯짓 가르치는 크나큰 힘들이
여기에서 만나고 있네



세계 속의 큰 빛, '이화' 재도약을 염원

우복희 | 의학과 63년도 졸업, 전 이화의료원 원장,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서울 정동에 이화학당을 개설한지 100년하교도 28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유구한 세월 속에 우리 이화대학은 여성교육의 불모지에서 한줄기 희망으로 수많은 여성 인재들을 양성해 왔습니다. 또한 최초의 여성전문병원으로 출범한 이화의료원은 현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종합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우리의 이화여자대학교가 지금의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 수많은 교수,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분들의 숨겨진 은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항상 우리 이화공동체의 번영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동창 여러분들도 참으로 지대한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동창들의 모교를 위하는 사랑과 격려, 도움은 모교 발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2015년 청양의 힘찬 기운이 느껴지는 을미년이 밝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이화인들이 다시 도약할 때가 왔습니다. 현재의 성취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바야흐로 글로벌 21세기에 걸맞는 우리 이화대학, 이화의료원이 국제무대에서 큰 빛을 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주축이 되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합시다.

우리 '이화'의 이름이 세계인에게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으로 회자되며 세계인들이 모두 '이화'의 품 안에서 '이화'를 열망하기를 염원합니다.



2014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 행사

세계 명문으로 우뚝 설 모교 '이화'와 함께 1천 2백여 동창들 한마음 한뜻

제 10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이인숙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 시상

2014년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총동창회가 주관한 2014년도 '이화인의 밤' 및 모교가 주관한 '이화비전선포식'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각 대학(원), 학부, 과, 지회 동창 및 내외빈 등 1천 200여 명이 함께한 이번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 행사는 그 어느 해보다 '이화 사랑'을 가슴에 담고 다시 한번 모교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원한 송년의 밤이었다.

5부로 나눠 진행한 이번 행사는 1부 '이화비전선포식', 2부 만남, 3부 만찬, 4부 작은 음악회, 5부 행운잔치 순으로 3시간여 동안 이화 동창들은 우정의 덕담을 나누며 2014년을 보내는 아쉬움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소망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조종남(의학 75) 총동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 총동창회의 여러 행사에 협조와 성원을 보내준 동창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오늘 이

화인의 밤에 앞서 가진 ‘이화비전선포식’을 가슴에 새기며 총동창회는 20여만 회원의 기대와 협조에 힘입어,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보람과 기쁨을 나누는 총동창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모교 발전에도 더욱 보탬이 되는 총동창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또한 총동창회는 2013년부터 대학원 졸업생들을 정회원이 되게 하여 폭넓은 동창회원을 가지게 되었으며 정보화시대를 맞아 IT를 이용한 소통의 장을 열기 위한 정보통신부 신설 기념으로 제1회

‘이화사랑 글짓기대회’를 실시하여 이화사랑과 추억을 일깨우는 기회를 가졌으며 젊은 동창들의 총동창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이화가족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는 벌써 3회째 개최하고 있다는 보고도 하였다.

특히 “모교 발전에 헌신적인 장명수 이사장님 비롯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경희 총장님, 정의숙 전이사장님, 윤후정 명예총장님, 장상, 신인령, 이배용 전총장님, 윤순희, 김순영 고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모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1. 정의숙 이화학당 전이사장 2. 윤후정 명예총장 3. 장명수 이사장 4. 최경희 총장 5. 윤순희총동창회 고문 6.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7. 조종남 총동창회장 8. 아름다운 이화인 수상 이인숙관장 9. 장상 전총장 10. 신인령 전총장 11. 이배용 전총장 12. 김선옥 전총장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하며 남은 임기동안 성심을 다하여 동창들을 섬길 것을 약속하였다.

이날 조준남 회장은 최경희 총장에게 동창들이 모금한 모교발전기금 1억 원을 전달하며 앞으로도 ‘신축기숙사 건립기금’ 모금에 열과 성을 다하자고 참석 동창들에게 호소하였다. 약정서를 전달 받은 최경희 총장은 동창들의 모교 사랑에 감사를 표하며 “1부 ‘이화비전선포식’에서 미래 모교 발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렸지만 5분간만 더 할애하여 말씀드리겠다”며 세계 최고의 ‘이화’를 만들기 위한 야심찬 전략들의 구체성을 소개하여

참석 동창들의 박수를 받았다. 더불어 2017년 마곡 의료지구 건설로 앞으로 이화가 그곳 의료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날개를 달고 세계로의 비상을 하게 될 것임을 알렸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제10회 ‘아름다운 이화인’ 시상식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이인숙(초등교육 70)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은 시각장애라는 역경속에서 20년 동안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에게 교육 박물관 체험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봉사함으로써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어 우리 사회에 나눔과 베품, 섬김이라는 고귀한 실천을 보



1



2



3

1 아름다운 이화인 상 시상 2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3 지금옥, 이정화, 주정미 동창의 진도북춤

여주고 있다.

모교 졸업 후 이 동창은 뛰어난 음악적 재능으로 학교 행사를 도맡아 하며 열정과 사명감으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되어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그 후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으로써 풍금 연주와 동요 부르기 등 연주와 체험을 통한 이야기 봉사에 헌신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인성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수상 소감에서 이 동창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이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웃음전도사

가 되었다' 면서 즉석에서 노래를 열창하여 좌중을 웃게 만들기도 하였다.

이날 이정화(무용 78), 주정미(의직 74), 지금옥(정의 60) 동창 등이 출연한 진도북춤의 활기찬 경쾌함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의 박진감 넘치는 연주가 어우러진 4부 '작은 음악회' 는 동창들에게 특별한 감흥을 느끼게 하였다. 푸짐한 선물이 담긴 행운권 추첨도 화기에 애하게 진행되어 당첨자가 나올 때마다 축하의 박수를 아낌없이 보낸 동창들은 2014년을 보내는 흥겹고 유쾌한 '이화인의 밤' 을 마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세상에 빛이 되는 당당한 이화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인숙 (초등교육 70, 덕포진교육박물관 관장)



먼저 부족한 제가 아름다운 이화인상을 수상하게 된 점, 모든 이화인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의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저보다 이 세상의 음지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많으신 데도 기대하지 않았던 이 상을 제가 받게 되어서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처음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이 상을 받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20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타적인 삶을 살라는 가르침을 강조했는데, 그 가르침을 제 스스로 당당하게 보여준 것 같아서입니다.

수상식장에서 저에 대한 동영상이 나갈 때 물론 저는 앞이 보이지 않아 볼 수는 없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삶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심의 세계가 좋아서 뿌리 깊은 나무를 심어보기 위해 초등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열심히 교정을 누볐던 저의 젊었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첫 교단에서 서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던 장면도, 운동회 때 단상에서 마스케임을 진두지휘했던 순간도 생각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의 절망적인 순간과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나에게 닥친 시련에 대해 원망으로 가득했던 시기도 보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육박물관을 설립하고 그 안에서 보람과 희망을 다시금 느끼게 된 순간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풍금을 치면서 부른

동요에 감동 받은 관람객들이 보내 준 박수소리가 동영상을 통해 저의 귀에 들렸을 즈음, 동영상이 끝나면서 보내주시는 이화인들의 박수갈채가 오버랩 되면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면서 세 가지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처음 겪으

면서 제 맘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끌어내시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돌아가신 저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래도 제가 남을 가르치는 당당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셨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박물관을 찾아 주신 모든 관람객들입니다. 제가 아무리 풍금을 치고 노래를 해도 그분들이 저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제가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를 보러 오셔서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서 가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오히려 제가 그분들한테 받은 희망과 위안이 더욱 큼니다.

앞으로도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선미의 교훈을 되새기며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에 빛이 되는 당당한 이화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제2의 삶으로 도약하게 해주신 이화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운선물 기증 목록



1	정익숙 전이사장	30만원 백화점상품권1매	31	김진항간호대학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2	윤후정 명예총장	순금 행운의 열쇠1점	32	정용희 약학대학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3	장명수 이사장	50만원 백화점상품권1매	33	채문경 대학원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4	김선옥 전총장	에스프레소 머신1대	34	양수화 교육대학원 동창회장	MCM 핸드백1점
5	최경희 총장	로봇청소기1대	35	허지현 사회복지대 학원 동창회장	핸드백1점
6	조종남 총동창회장	LG트롬 드럼세탁기1대	36	최영은 정책과학대학원 동창회장	루이까뜨즈 넥타이10점
7	이순남의무부총장	목동병원 패트김진권1매	37	이주영 영문과동창	10만원 GS 상품권20매
8	윤순희 총동창회 고문	50만원 백화점상품권1매	38	정재정 불문과동창	종근당 건강기능식품 10점
9	김순영 총동창회 고문	LG노트북1대	39	한경희 불문과동창	한경희 생활가전제품5점
10	박유니 총동창회 부회장	밍크쪼끼1점	40	손성혜 교육과동창	손성혜 행복상품권1매
11	조경원 총동창회 부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41	이호정 화학과동창	erborian 화장품세트10점
12	유희숙 총동창회 감사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42	오주원 교육과동창	루이까뜨즈 핸드백2점
13	손중수 총동창회 감사	도자기 내열냄비8점	43	전혜성 정책과학대학원동창	미니튀김기1대
14	김효신 총동창회 총무	진동치솔세트5점	44	마희자 ALPS3기 동창	진주목걸이2점
15	황영남 총동창회 회계	Creed 스프링클러워항수1점	45	홍리희 ALPS7기 동창	삼성스탠드형 김치냉장고1대
16	박경임 총동창회 문화부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46	이연한 ALPS11기 동창	일로에미네랄워터1,200병
17	위성숙 총동창회 재정부장	고단위 종합영양제세트5점	47	유경자 ALPS14기 동창	"예당-정들담은 밥상" 2인식사권2매
18	계명선 총동창회 음악부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48	고영애 ALPS23기 동창	고영애 행복배자2점
19	유영선 총동창회 홍보부장	제주도 왕복항공권2매	49	박경숙 ALPS26기 동창	박경숙 패션100만원 의류교환권1매
20	이혜양 총동창회 지역부장	30만원 삼성상품권1매	50	이재영 ALPS29기 동창	마이도터스웨딩 드레스 기프트권1매
21	김미순 총동창회 선교부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51	김화숙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22	성시열 총동창회 정보통신부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52	대웅제약	상처치료제"이지담"1,200점
23	김혜원 인문대학 동창회장	피부미용마사지권3매	53	롯데백화점	10만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매
24	김이경 사회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54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목동병원 건강검진권 3매
25	조혜영 공과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55	인터컨티넨탈호텔	인터컨티넨탈(코엑스)2인뷔페식사권 5매
26	방명혜 음악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56	에센스오브아르간	퍼퓸오일(카사블랑카)10점
27	남은숙 조형대학 동창회장	정관장홍삼액기스리미티드1점	57	(주)샘표식품	백년동안 흑초스틱타입산머루복분자1,200점
28	김영주 사범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58	한국화이자제약	챗스틱 1,200점
29	문미란 법과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59	총동창회	수첩, 달력, 가방, 글짓기대회작품집
30	윤석완 의과대학 동창회장	10만원 백화점상품권3매			각 1,200점



2014년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

일시: 2014년 11월24일 오후6시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주최: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이화 캠퍼스 마스터 플랜

융합 환경의 스마트 캠퍼스 구축을 통한 교육·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

이화 캠퍼스의 종합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건물 신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17만 평에 이르는 이화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최대로, 최적화하여 이화구성원들의 교육·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신년 기획특집

이화비전선포식을 보고

우리 대학 동창회 협력은 이렇게 실천

2014년 11월 24일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에 참석한 1천 2백여 명 동창들은 2015년 창립 129주년을 맞는 모교가 새롭게 수립한 '비전 2020: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를 보고 느끼고 확신할 수 있었다. 이제 '이화'의 새로운 미래는 더 이상 꿈이 아니라 우리가 모교를 위해 실천해 나가야만 될 목표로 '이화비전선포식'을 본 대학 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총장,교수,재학생,동창, 교직원대표 함께 '이화비전' 선포

2014년 11월 24일 오후 6시 '이화인의 밤' 에서 거행된 '이화비전선포식' 은 황수경(불문 93)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화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양명수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급속한 사회 환경 변화속에서 교육 분야 변혁을 선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교의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 의 비전과 4대 전략인 조직 · 인재 · 인프라 혁신, 이화 DNA(Dream and Achievement) 네트워크 구축, 이화글로벌브랜드파워 제고, 사회적 기여 및 나눔 확산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이 상영되었다.

홍보영상 후 제 15대 최정희 신임총장은 특유의 당당하고 힘찬 목소리로 이화비전을 소개하여 동창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고 '대한민국이 은둔의 나라에서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이화는 항상 세계화의 기수로 앞장서왔다' 는 이흥구 전 국무총리의 축사가 있었다.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을 목표로 제 2 창학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이화비전 선포식' 의 하이라이트는 최정희 총장을 비롯하여 고팡석 식품영양학과 교수, 국현수 경제학과 2013년 년 입학 재학생, 최대성 대외협력처 직원, 권미경 교육공학과 87년 졸업 동창(현재 신한은행 이대지점장) 등 교수, 학생, 직원, 동창 대표가 함께 '이화' 의 도전과 혁신의 의지를 반영한 비전을 직접 선언한 선언문 낭독이다. 이 선언문에는 끝없는 혁신, 담대한 희망, 따뜻한 사랑, 개방과 대화, 시대의 소명을 핵심으로 하는 5가지 다짐을 담았다.



양케이트 문항

- 1 이화비전선포식을 보고 우리 대학에서 모교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2 위의 협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와 계획을 들려주세요.
- 3 2015년을 맞아 개인적으로 모교와 총동창회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간호대학

김진향 회장 (간호73)



1 이화비전선포식에서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 비전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최경희 총장께서 제시한 조직·인재·인프라 혁신, 이화DNA 네트워크 구축, 이화글로벌 브랜드 파워 제고, 사회적 기여 및 나눔 확산에 깊이 동감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간호대학 동창회에서는 동창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학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2 먼저, 동창 네트워크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계획한다.

- 1) 동창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국내·국외동창과도 연락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최신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하여 확충한다.
- 2) 동창모임을 활성화한다. 간호대학 졸업 기수별, 지역별 및 직종별 대표를 선출하여 기별 동창 모임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전체 동창의 단합을 위해 정기총회 외 단합대회(여행 등)를 통해 동창회의 세대 간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이는 지난 3년간 간호대학 동창 단합대회를 통해 세대 간에 유대감이 돈독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외 간호대학 동창회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이화간호 소식지 발간을 통해 동창소식을 알린다.

3) 동창과 모교와의 관계를 증진시킨다. 이를 위하여 동창모임 시 모교 방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동창들이 모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한다. 동창-재학생 멘토-멘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후배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동창들이 후배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학발전기금 모금을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계획한다.

1) 간호대학 건축기금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교수와 동창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모임을 갖는다. 이를 위하여 이미 퇴임한 교수와 증경회장단으로 구성된 모임을 개최하였으며, 모임에 참여한 동창들께서 적극적으로 기금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 기약정한 분들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 기부금을 약정한 후 과정을 설명하여 지속적으로 모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를 증진시킨다. 3) 간호대학동창 관련 기관, 병원, 회사 등을 방문하여 기부금 모금활동을 펼친다.

3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은 1903년 정동의 보구여관에서 학생 교육을 시작하여 1955년 한국 최초의 학사학위과정 인가를 받은 한국간호교육의 효시이다. 현재 아시아 최고의 간호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동창, 교수, 학생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현재 건강과학대학에 속해있는 간호학부가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으로서 전통을 빛낼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의 지원에 힘입어 아시아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약학대학

정용희 회장 (약학 75)



1 약학대학에 보다 우수한 학생이 입학할 수 있도록, 교수진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약대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모교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보고 약대동창회는 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2 현재 동창회는 모교인 약대의 재학생을 위하여 주홍장학회를 운영하여 장학금 수여를 하고 있으며 병원약사장학회, 문봉장학회, 그외 개인장학금등으로 후배 재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또한 약학연구소의 세미나 등에 도움이 되도록 약연후원회를 두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도 계속 위와 같은 후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또한 보다 나은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동창회가 약대건축기금을 모으고 있으며 현재 약 16억여 원이 기금으로 모았다. 이러한 활동이 모교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다.

3 모교는 전공 공부를 위한 학업 증진과 섬김과 나눔의 이화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학문적으로 꾸준한 연구로 각 분야에서 업적을 이루는 동창들을 많이 배출해주기를 바라며 총동창회도 이를 격려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공과대학

조혜영 회장 (컴퓨터 85)



1 동창회에서 다수의 창업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도록 노력하여 학교의 지원을 받도록 한다면 창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업한 회사가 수익을 내어 수익의 일부를 학교로 환원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대학 졸업 후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의 인력풀을 만들어 연관된 학과의 후배들에게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하여 창업동아리나 창업을 돕도록 하는 것이 실제적 방법이다.

또한 국가에서 각 대학에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나 정부의 지원 자금 루트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소나 학교 또는 기업체에서 활동하는 동창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따서 대학의 창업동아리나 창업한 회사를 도와준다면 수익을 낼 수가 있으므로 모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3 전에는 졸업생들 중 재계의 며느리나 딸인 동창이 많아 졸업 후 모교를 돕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남녀공학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그러한 동창들의 후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타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부형들의 동아리 모임, 멘토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가지게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기금마련만을 위해 동창회나 모임에서 동창들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방법은 늘 있어온 일이므로 동창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이상 확산되기 힘들다.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모교나 동창회에서 깊이 있는 강좌를 통한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준다면 각자의 취향대로 모교에서 취미생활을 하며 애교심도 고취시키고 더불어 모교 발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어 자연스럽게 후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내 이름 이화의 벽에 영원히 남기다

‘이화 정신’이 ‘나눔과 섬김, 사랑’임을 모르는 이화 동창은 없다. 그러나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국적은 바뀌어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모교 ‘이화’는 우리에게 지식의 가르침과 더불어 스무살 이후의 값진 ‘삶의 행로’에 대한 지혜를 가르쳤다. 삶 속에 ‘이화’에서 배운 ‘나눔과 사랑’을 담았던 아내가 유명(幽明)을 달리한 후 사랑하는 남편이 실천한 ‘아름다운 기부’가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물하고 있다. 2015년 새해 다짐을 ‘이화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기부’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편집자주)



‘정경임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의 경이로운 탄생

고(故) 정경임(의직 75) 동창 부군 안상수

‘세상의 변화는 사람의 변화로부터 일어난다.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믿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2010년 11월 1일 아내 고(故) 정경임(의직 75) 동창을 잃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화’가 한 인재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비록 10여 년 병상에 누워 꼼짝도 못했던 아내였지만 결혼 초 1년 여 만에 희귀병인 ‘모야모야 병마’와 싸우며 대학 강단에 섰던 수년 동안, 정 동창의 전문성과 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남

편이었기 때문이다.

안상수 전 시장이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병상에서도 잠깐 정신이 들 때 보여준 아내의 선한 미소였다. 그 속에 담긴 한결같은 말은 ‘사랑’으로, 힘겨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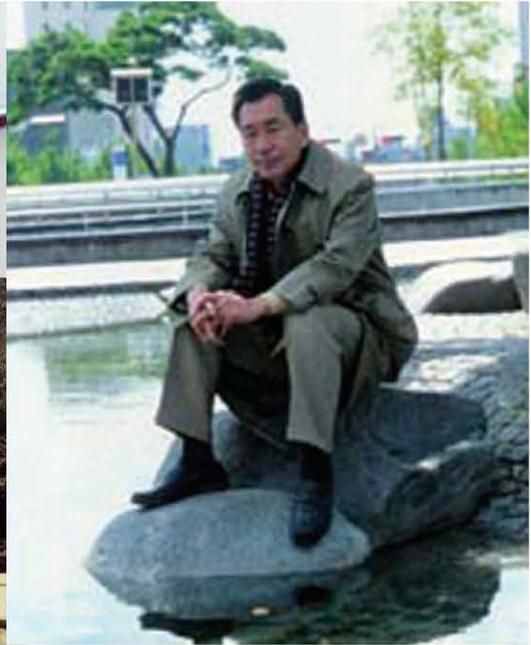
고정경임 동창

정치세계에서 아내 역할을 하지 못한 미안함을 담아 표현한 것이다.

28년의 결혼생활 동안 불과 신혼 1년여를 제외하고 병 때문에 자녀 갖기도 포기한 채 오직 아내의 건강만을 염원한 남편이었지만 아내가 보이는 미안함의 미소는 오히려 자신에게 아내를 좀 더 잘



위 병상에서도 부군의 손을 꼭 잡고, 아래 의류지물학과 학창시절



고 정경임 동창 부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보살피라는 무언의 질책같이 느껴졌다.

“평소 아내가 나온 ‘이화’를 매우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능력 있는 여성 지도자, 훌륭한 어머니를 많이 배출한 학교로 최고 아닙니까?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가 나라 발전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성 대통령을 선택한 것도 여성의 탁월하고 섬세한 리더십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안상수 전 시장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아내의 모교 ‘이화’에 당시 5억 원 상당의 자신의 집을 기부한다. 2011년 4월의 11일의 일이다. 안전시장의 기부 의사 전화를 받았던 모교 대외협력처는 ‘정말 뜻밖의 경이로운 일’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정경임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은 이렇게 조성되

어 해마다 ‘글로벌인재’를 키워내고 있다. 작년 8월에 취임한 최정희 총장도 ‘이화’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꿈과 도전을 가진 인재 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정경임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은 이미 이 일에 일조하고 있는 셈이다.

“저는 대학에 기부하는 문화가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적인 대학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런 대학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 국민의 기부문화 때문입니다.”

기부문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안전 시장이었지만 아내와 함께 결혼 7년 만에 어렵게 장만한 각별한 의미가 있는 첫 보금자리를 선택 ‘이화’에 내어놓기는 쉽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그



대가족으로 단란했던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가족사진. 오른쪽5번째가 안상수, 고정경임 동창부부

는 오래오래 이화여자대학교에 아내 ‘정경임’의 이름이 남아 학생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회자될 수만 있다면 하는 소망 한 가지뿐이었다.

아니 그것은 어쩌면 아픈 병상 속에서도 늘 남편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내에게 살아생전 다하지 못했던 사랑을 늦게나마 주고 싶은 남편의 간절한 소망은 아니었을까.

최근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감사편지를 읽으며 더욱 기부와 나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 그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기부와 나눔의 적극적인 홍보와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천을 동북아 허브로 만들겠다는 꿈이 아직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를 실현시키겠다는 남편을 고정경임 동창은 하늘에서 애타게 격려하고 있으리라.

그것이 이화여자대학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의 벽’에 새겨진 ‘정경임’ 이름을 대대손손 ‘이화인’들이 부를 수 있도록 한 영광을 준 남편에 대한 사랑일 터이니까.

아내 이름 오래 ‘이화’에 기억되고픈 소망

고(故) 이동희(영문 62) 동창부군 김택재

2013년 11월 기부자 명예의 전당(Ewha Donors Wall)에 새겨진 아내 고(故) 이동희(영문 62) 동창 이름을 오래도록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남편 김택재(Douglas Kim)씨. 그는 멀리 미국 텍사스에서 한국어로 아내의 이름 세 자를 ‘이화’의 벽에 남

기기 위해 오랜 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독립운동가의 후예로 어린 시절을 상하이에서 보냈고 이후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한국어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깊은 대화는 영어나 중국어가 더 편하다는 김택재 씨는 고 이동희 동창

의 갑작스러운 타계에 슬픔 속에서도 제일 먼저 '이화'에 대한 기부를 생각했다.

고 이동희 동창을 만난 것은 미국인과의 첫 번째 결혼 실패로 한창 실의에 빠져 있을 때였다. 이동희 역시 독립

운동가인 부친 슬하에서 자라 '이화'의 교육을 받은 뛰어난 재원으로 두 사람의 만남으로 김덕재 씨는 제 2의 삶에 다시 깊은 사랑과 아름다움을 설계할 수 있었다.

결혼생활 내내 행복했던 부부는 77세 희수를 바라보는 아내를 위해 오랫동안 꿈꿔온 세계 일주 여행을 계획하였고 앞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뜻밖에도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아내의 병은 오래지 않아 남편에게서 아내를 떠나게 만들었다.

“아내는 매우 아름답고 패션에 조예가 깊었으며,



요리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결혼생활 동안 그녀에게 너무나 크고 깊은 사랑을 받았기에 아내를 위한 기부를 꼭 하고 싶습니다.”

남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

다. 아내의 이름이 '이화'에 기억되게 하고 싶어 기부를 문의한 남편은 이화여대 안의 '기부자 명예의 전당(Ewha Donors Wall)'을 보았고 당초 생각했던 기부금액을 훌쩍 뛰어넘어 장학기금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앞으로 김덕재 씨가 아들 Arrik Kim과 함께 몇 번을 더 고국 땅을 밟게 될지 모르지만 늘 '이화'의 벽에 새겨놓은 아내 '이동희'를 생각할 때면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떠올 것이다.

글. 유영선(신방 75, 총동창회 홍보부장)

이화'를 방문, '기부자의 벽'에 선 김덕재 고 이동희 동창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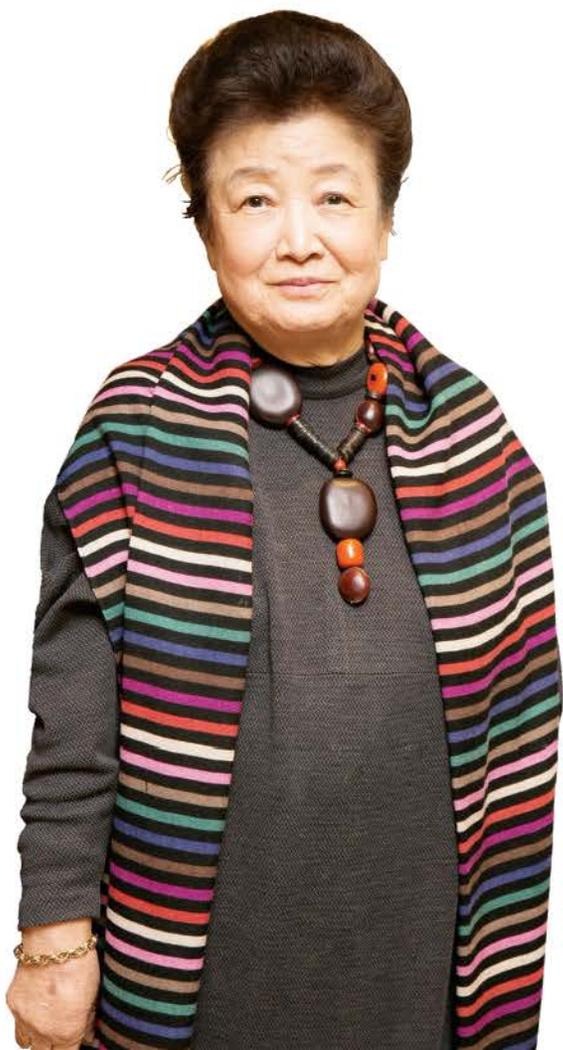


노교수의
회상

내 생애의 동지는 이화

이영자

작곡과 1954년 졸업
현재 (사)한국여성작곡가회 명예회장(설립자)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전 이화여대 음대 교수



아스라이 멀리 있는 내 삶의 보석함을 열었다.

‘한가람 봄 바람에 피어난 우리. 성인이 이를 불러
이화라 썼다. 거룩한 노래 곱게도 나니 황화 방 안
에 천국이 예라.’

보석함에서 나오는 노래는 내 온몸을 송두리째 격
동의 그 옛날 그 자리에 세워주었다. 1950년 5월 10
일 강원도 춘터를 내며 이화여대 예술대학 음악학
부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식을 했다. 피아노도 집에
없고 부모님의 맹렬한 반대도 우겨가며 쓸모없고
사치라는 피아노 공부를 왜 선택했는지 지금도 답
은 없지만 누군가가 내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강한
힘으로 밀어주었다.

진관 기숙사에서 꿈속 같던 생활 한 달 반 만에 그
행운도 6·25라는 날벼락 같은 폭탄을 맞고 신산이
깨어졌다. 대구에서, 부산에서, 이리(정읍), 군산에
서, 강원도에서... 음악예술로 사회정화를 꿈꾸던
우리들은 전쟁의 처참함 속에 내던져졌고 가족들
과 만나기 위해 춘천으로 홍천으로 횡성으로 다시
서울로 걸어 9·28 연합군을 맞아 처절한 만세를
불렀다. 살아남았다는 기적 같은 존재감에 하늘을
찌르는 행복과 감사에 피를 토하듯 기도했다. 그때
나는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창작음악으로 영혼
에 스며드는 슬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작곡을 하리
라고 맹세했다. 1·4후퇴로 부산은 인산인해로 인
간지옥 같았다.

1951년 가을, 부산 대신동 끝에 천막치고 이화가
개교할 땐 나는 1학년 2학기였다. 서울의 아름다운 캠퍼스는 4학년 2학기를 다니
고 쫓겨나듯 졸업했다. 버스 타기도 어려웠던 시절
우리들은 전차로 서대문까지 와서 북아현동 고개



위부터 김지현(작곡 95), 심옥식(작곡 82), 심현아(작곡 93), 한혜리(작곡 79) 동창, 이영자 교수, 이상인(작곡 78), 진정숙(작곡 75) 동창

를 걸어서 이화의 본관 뒤 언덕에서 내려가곤 했다. 그 시절 복아현동 길은 서대문에서 내린 학생들이 다들 모여들어 걷기조차 힘들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64년 전 그 모습은 장관이었고, 내 가슴에 향학열을 더욱 강하게 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그때 너무 굶어서 뼈만 남았던 모습, 복아현동의 젊은이들 모습은 거룩한 모습으로 내 삶의 보석함에서 빛을 내고 있다.

1956년 대학원을 마치고 1958년 여름 나는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갔다. 서울이 폐허가 되고 암담했던 시절 유학생 국가고시도 보고 140불 학비도 정식으로 받았다. 유학이 나의 두 번째의 불가사의지만 그 때도 보이지 않는 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1961년 봄에 귀국하여 가을학기를 시간강사하고 62년 봄학기에 전임이 되었다. 꿈같은 나의 청춘은 그렇게 빛과 분에 넘치는 축복이었다.

학창시절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김옥길 선생님의 배려와 김영의 학장님의 깊은 사랑으로 귀국한 다음날로 불려가서 일하라는 명을 받은 행운아였다. 작곡으로는 최초의 여성 유학생이었다. 일주일에

25시간을 맡고 뛰었다. ‘시간이 너무 많아 줄여주세요’ 했지만 ‘이화는 바애정신으로 가르치는 곳’이라 하셨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예술대학이 음악대학이 되고 이화를 빛낸다는 뜨거운 사랑과 신념으로 후배들 앞에 섰다. 그 무렵엔 밤잠 자지 않고 제자들 숙제 봐주느라 작곡은 쓸 수 없었다. 24시간동안 오로지 제자 사랑 뿐, 나의 정열을 음악으로 써 내려가는 시간은 부족했다. 피, 관, 성, 종, 작, 국(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종교음악과, 작곡과, 국악과) 등 모든 과에 시창, 청음, 화성학, 대위법과 후가, 관현악법을 가르쳤고, 합창까지 중강당에 모아놓고 연습 지도했었다.

생각해보면 값어치 없을 만큼 많은 은총과 사랑을 받았다. 남편이 외교관이어서 3년에 한번씩 외국에 나가 새로운 기법의 공부도 했다. 학창시절 6년과 23년의 교직생활이 내 삶의 반석으로 반려자로 보석함 속에서 반짝이고 있다.

이제는 나의 첫 제자들도 고회를 지나고 희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화 이화 우리 이화진, 선, 미의 우리 이화 네 향기 널리 퍼져라아 우리 이화.’

제자들의 이야기

아직도 어려운 작곡단체 돕는 선생님

강순미

(작곡가, 작곡가, 성신여대 명예교수)

이영자 교수님과과의 첫 만남은 1967년 입시를 치를 때였다. 우리 수험생들은 음대 201호(현 대학원관)에서 화성학이라는 주요 과목을 치르느라 진땀을 빼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획 한번 둘러보시고 나가셨다. 그 당시 선생님께서는 무릎 중간 길이의 박스형 모직 원피스에 무릎 아래까지 오는 검정 색의 긴 부츠를 신으시고 올림머리를 하신 다소 가느다란 외모를 가지신 상당히 멋진 분이셨다. 졸업 후 선생님께서 1981년에 설립하신 한국여성작곡가회에서 활동하면서부터 선생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뵈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선생님은 후배 여성 작곡가들에게 쓴 소리도 주저하지 않으시지만, 또 공모를 통해 작품이 당선 되었을 때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시다.

선생님은 멋스러우면서도 검소하시고, 또 매우 부지런하신 분이시다. 가정주부의 소임을 한 치의 홀트림 없이 수행하시는 한편, 후배 작곡가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작품을 많이 작곡하셨다. 선생님은 서울시 문화상, 대한민국 예술원상, 3.1문화상, 대한민국 작곡상 등등 모두가 부

러워하는 큰 상들을 수상하시면서 받으신 거액의(?) 상금 모두를 어려운 여러 작곡 단체에 기부하는 쉽지 않은 가치 있는 행동을 보여 주셨으며, 그런 기부정신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영자 선생님! 부디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대한민국의 음악계의 등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선생님은 하늘이 내신 예술가

한혜리

(작곡가, 숙명여대 초빙교수)

나의 오랜 은사이신 이영자 선생님과과의 인연이 어언 40년 가까워 온다. 처음 선생님을 뵈었을 때 현재의 나보다 더 젊으셨을 터인데도 그때는 선생님이 너무 어려워서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가까이 곁에 가는 것도 조심스러워 주변을 맴돌던 생각이 난다. 정이 많으시지만 공부할 때는 매우 엄하셨고 공정하게 하셔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외교관 아내로서의 직분으로 외국에 나가계실 때가 있어 4년을 오롯이 배울 수는 없었지만 나의 청년기서부터의 모든 것을 가족처럼 알고계시고 보살펴주시는 단 한분의 스승이시다.

선생님께서 일제 강점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해방해서 소년기, 6.25 전쟁 때 청년기를 보내며 암울한 시대를 살아오셨다. 요새같이 부모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은 커녕 오히려 음악을 하지 말라는 아버지와 맞서 그 시대에 유학까지 감행하신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 때문인지 선생님의 작품에는 한(恨)이 많이 녹아있고 작품해설에도



왼쪽부터 한혜리(작곡 79), 김창신(작곡 80), 강순미(작곡 71) 동창, 이영자 교수, 방명혜(기악 67) 음대 동창회장, 심옥식(작곡 82), 임경신(작곡 92) 동창

‘한’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또한 선생님은 우리나라 음악계의 산 증인이시
다. 여러 작곡단체들이 태동될 때와 음악계의 발전
역사, 그리고 예술의 보고 같던 명동 다방에서 젊
은 혼을 불태웠던 수많은 예술가 등 그 시대를 살
지 않았고 체휼할 수 없는 귀중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팔순이 넘으신 연세에도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시며 요즘도 밤을 새고 작품을 쓰시고 작품구상
을 하시는 선생님. 선생님은 하늘이 내신 예술가란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작곡계의 대모, 나의 큰 울타리

심옥식

(작곡 82, 숙명여대 초빙교수)

1978년 대학에 입학한 후 나는 다른 세 명의 신입
생들과 함께 선생님의 실기 제자로 배정되었다. 새
내기인 나는 약간은 두렵고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선생님과 첫 만남을 가졌고 그 때 선생님의 첫인상
은 상당히 예쁘고 멋지며 매우 당당하시다는 것이
었다.

그렇게 시작된 선생님과 의 인연은 선생님의 외국
생활로, 그리고 또 나의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만
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
고 있는데 작곡가로서, 교수로서, 외교관의 아내로
서, 그리고 세 자매의 엄마로서 그 어느 하나도 소
홀함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선생님은 인
생의 대 선배로서 그리고 롤 모델로서 내 인생의 매
단계마다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고 계시다.

영혼이 담긴 선율들을 엮어내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며 지금도 매년 여러 편의 새로운 작품들을 발
표하시는 선생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이시다.

팔순이 지난 요즘도 뽀족 구두를 신으시고 길게
머플러를 드리운 채 제자들을 만나러 나오시기 전
날 밤에도 당신은 밤새워 작곡하셨다면서 게으른
제자들에게 특유의 큰소리로 호통치는 우리 선생
님은 지금도 예쁘시고 멋지시며 당당하시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도핑관리담당관이경언 미래 체육과학 국제무대에서 이화 빛낼 유망주



런던올림픽에서 ITU스텝으로 참여

새내기 앳된 얼굴로 2005년 3월 스포츠마사지 세미나 수업에서 눈을 반짝이던 경언이가 어느 날 이화 동산이 아닌 밖의 여기저기에서 종횡무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경언이는 휴학을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해외봉사활동을 한다고 태권도사범으로 인도로, 그리고 2011년 졸업을 한 후, 국제스포츠기구로 인턴을 하러 캐나다로 경충, 그리고 스위스로 또 경충 뛰어갔다. 캐나다와 스위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카톡으로 주고 받으며, 즐겁게, 또한 체육인으로 새로운 일들을 창출해 나가면서 커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자신의 꿈이었던 국제스포츠기구 진출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경언이에게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고 할까, 두려움 없는 젊음에 찬사를 보내며 이경언 동창을 소개한다.

이경언 동창은 체육학과 재학 중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한 해외봉사활동을 인도 파टना에서 5개월간 태권도사범으로 그리고 정부학교에서 체육교사로 활동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인턴생활을 하였다.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곳은 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ITU)본부인 캐나다에서였다. 대한체육회 지원으로 ITU 본부에서 그곳의 행정, 도핑, 개발,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부서의 일을 배우는 것이었는데, 생소한 스포츠 용어사용 등 처음 몇 개월은 힘들었다고 한다. 이 동창을 눈여겨 본 본부 사무총장이 인턴 기간 6개월 연장을 대한체육회에 요청하여 9개월은 캐나다 본부에서, 3개월은 스위스로잔 사무실인 경기부에서 총 1년간 일하게 되었다.

이경언 동창은 “제가 ITU에서 일한 시기가 운 좋게 2012년 런던올림픽이 있어서 올림픽 준비하는 재미가 굉장했다”고 말한 바 있다. 런던올림픽에서 쓰일 선수들의 프로필이 담긴 책자를 만드는 일을 도왔고, 올림픽 현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챙기고 운반하는 일, 도핑에 필요한 선수생체수첩(ABP) 준비를 도왔다. 그녀에게 올림픽의 생생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오니 어떤 기분이라고 물었더니 “처음으로 올림픽 현장에서 관중이 아닌 스포츠기구의 멤버로서 일한다는 것이

매우 뿌듯한 일이었어요.” 라고 답했었다.

그 이후 2013년부터 작년 10월까지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도핑관리 담당관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도핑관리 담당관으로 일하면서, 테스트 이벤트인 2013실내 & 무도 아시아경기대회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맡은 국제대회인 만큼 실수도 많았고,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그렇게 겪은 경험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했다.

그녀는 한번 겪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49개 경기장의 모든 도핑관리실을 준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추운 겨울 경기장 실사를 나가 고 타부서와 협상하는 일 또한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많은 경기장의 도핑관리실을 처음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일이었다.



2013실내 무도아시아경기대회 도핑관리 담당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도핑관리 담당관

다고 한다.

이 동창은 “경기장관리가 체력싸움이었다면, 도핑 검사배분계획을 짜고 이에 맞춰서 인력을 배치하는 일은 머리싸움이었어요. 정말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여 다시 검토해보면 조금씩 실수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감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었죠. 그래도 아시아경기대회의 도핑검사가 제가 짠 검사배분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는 일은 정말 짜릿한 일이었어요.”라고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때의 소감을 말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은 그녀는 이제

AISTS(International Academy of Sport Science and Technology)로 NEST에서 해외학위과정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아 유학갈 예정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꿈을 실천하는 이경언 동창은 미래 체육과학 분야에서 이화를 빛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글. 이경옥(체육 80) 이대체육학과교수

기획르뷰

세계 최고 최초 지향, 우리 모교 이화탐색일곱 번째

세계인이 놀란 친환경 첨단 지하캠퍼스
국내 최대 규모, 에너지 절감 그린 캠퍼스 구현

ECC

(Ewha Campus Complex)

개교 이래 국내외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우리 모교 이화의 다양한 건물과 시설들을 시리즈로 집중 탐색하는 난을 마련하였다. 이 난을 통해 동창들이 모교를 찾아 자주 발걸음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호에는 '이화'의 교문을 들어서자마자 세계인이 놀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하캠퍼스 ECC관의 모든 부분을 샅샅이 훑어보고자 2회에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지하면서 지하가 아닌 캠퍼스 에너지와 비용 절감 으뜸

예전의 운동장의 자취는 이제 옛 추억 저편으로 밀려났다. 그 자리엔 지하를 깎아내어 만든 깊고 높고 커다랗고 긴 계곡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위에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봄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CC(Ewha Campus Complex). ECC는 계곡(valley, 길이 230m, 폭 20m) 양쪽에 들어간 지하 6개 층의 공간(건물 전체 길이 252m, 폭 74m). 연면적 6만5천㎡(약 2만 평)로 서울 강남에 자리잡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건물을 통째로 파묻은 격이다.



2005년 8월 공사시작

총 900석의 열람실, 32개의 세미나실, 2개의 전자강의실, 2개의 대형 강의실, 272석의 영화관과 716석의 공연장이 들어서 있다.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쟁쟁한 건축기들을 제치고 최종 설계자로 선정된 도미니크 페로의 작품으로 세상에 소개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2003년 초부터 시작된 이화 지하 캠퍼스 계획이



ECC 자유열람실

일 년 남짓 세밀한 기획 작업을 마치고 국제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도미니크 페로를 비롯해 요코하마 페리터미널을 설계한 부부 건축팀 FOA, 최근 완공된 동대문 DDP(디자인플라자)를 설계한 이라크 출신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 등 세계적인 건축가 세 팀에게 설계를 맡겼다.

그 결과 지하 건축물에 따르는 채광과 환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커다란 계곡과 빛의 폭포 같은 유리벽으로 해결한 프랑스의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선정되었다. 지하 같지 않은 지하를 제안한 그는 파넬 땅과 건물 외벽 사이에 만든 1m 너비의 ‘열 미로(thermal labyrinth)’를 통한 지열을 냉난방에 적극 활용하였다.

규모가 큰 공간 벽면에 지하수를 활용한 대형 라디에이터를 설치해 냉난방과 여름철 제습효과를 극대화했고, 빗물을 걸러 조경수, 화장실 등에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에너지와 비용 절감에 특특히 땀을 해내고 있다.



ECC 지붕에 조성된 정원. 빗물을 걸러 조경수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 건축계서 더 유명한 새로운 캠퍼스 모델 제시

“처음엔 안전 문제로 지하 공간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외국 설계사만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오해와 부정적인 시선도 있었어요. 이제는 국내외 건축계에서 인정을 받고 수상도 많이 하면서 그 분야 사람들이 꼭 둘러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재무처 시설담당 부처장으로서 실무를 총괄했던 본교 강미선 건축학과 교수는 그 당시를 돌아보았다.

ECC는 2008년 서울시 건축상 대상작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 눈에 보이는 건축에서 건물이 없는 풍경, 계곡만 있는 풍경을 시도해 새로운 캠퍼스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호평을 받았다. 또한 프랑스에서 자국 건축가가 외국에 설계한 건축물 가운데 ECC를 대통령상 수상작으로 뽑는 등 외국 건축계에 더 유명하다고 강미선 교수는 말한다.

“처음 기획할 때 학생들의 시간표와 활동반경까지 일일이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오래 머물면서 공부하고 지낼 수 있을까를 연구했습니다.”

강미선 교수의 말처럼 실제 수업만 마치면 학교에 있지 않고 3,4학년 때는 아예 일주일에 한두 번

만 학교에 나오도록 시간표를 짜는 등 갈 곳이 없다 보니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무르면서 보낼 수 있도록 해보자는 생각에 ECC 안에 열람실과 수면실, 피트니스센터, 영화관, 카페와 푸드코트 등 최대한 학습시설과 편의시설을 집어넣게 되었다.

ECC 안에서 24시간 활용하는 이화인의 일상

ECC 개관 후 지금까지 재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고 한다. 특히 시험기간에는 열람실에 공부하다 옆에 마련된 수면실에서 잠시 잠도 잘 수 있고, 밤새 공부하다 피트니스센터에서 가볍게 몸도 풀고 샤워장에서 씻고 다음날 수업을 준비할 수도 있다.

ECC에서 이화의 24시가 멈추지 않고 있다.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ECC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으니 말이다. 시험이 없는 시간에는 대학 캠퍼스 안에 최초로 들어온 백두대간의 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예술영화, 독립영화 등 대형 상영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작품도 쉽게 만날 수 있다.

“수면실은 열람실에서만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걱정 없이 공부하다가 맘 놓고 쉴 수 있습니다.”



ECC 앞에서 개최된 이화125주년대음악회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ECC

시설팀 김운정 과장은 불을 환히 켜지 않아도 낮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지하인 듯 지하 같지 않은 점이 ECC의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 천정이 모두 열려 있는데 슬라브가 냉난방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천정에 온돌 파이프처럼 지하수가 다 흐르며 건물 전체를 돌아다닌다.

실제 지하 6층이라 땅을 파게 되면 지하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보통 타 건물에서는 버리고 있지만 ECC는 일 년 내내 16~18도로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지하수를 모아서 천정 안에 계속 흐르게 하여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만든다. 더욱이 학교 내 시설은 밤에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낮에만 사용하므로 아침에 냉난방을 하려면 엄청난 로드가 기계에 걸리게 되어 냉난방 용량도 그만큼 커야 한다. ECC는 지하수 덕분에 밤사이 이미 상큼한 공기가 만들어져 있어서 용량이 작아도 되고 또한 기본적으로 냉난방 자체를 적게 해도 적정 온도가 유지된다는 게 그 비결이다.

차가움과 투명함, 따뜻함과 자연스러움이 어우러진 그린 캠퍼스

지상에는 차를 없애고 지하 공간을 주차장으로 전면 활용한 것도 그런 캠퍼스를 구현한 ECC의 모습이다. 75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여유 공간이 많다.

전체적으로 보면 유리와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등 차가운 자재가 많이 쓰였지만 바닥에 나무를 깔아 자연적이고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차가움과 투명함, 따뜻함과 자연스러움이 조화롭게 균형을 갖춘 건물이다. 또한 서울시 등록문화재인 본관을 비롯해 본교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첨단 현대식 건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점도 ECC의 강점이라 하겠다.

2005년부터 삼성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3년 동안 착업한 끝에 완성한 ECC. 진행과정에서 마무리까지 총동창회를 비롯한 이화 동창들의 열정적인 후원과 정성, 삼성을 필두로 국내 기업들의 협조로 ECC 탄생을 맞이할 수 있었다.

글. 박경희(신방 90, 이화동창 편집위원)

동창을 위한 박물관 체험 프로그램 및 특강



기획전시실전경

이화여대박물관(관장 장남원)은 2014년 가을특별전 <근대회화: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와 연계하여 이화동창을 위한 특별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근대회화: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 전시회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개념과 제도를 성립한 한국근대 화단의 여러 측면을 100여점의 이대박물관 소장품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대한제국 시기와 관련된 기록화, 어용화사가 그린 초상화, 그리고 당시에 발행된 우표와 교과서 등에서는 황제국의 위엄과 황실을 통해 받아들인 새로운 문물과 기술의 도입을 살펴볼 수 있으며 전통서화傳統書畵를 계승하고 후

진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여러 근대 미술교육기관의 교수들 및 이를 통해 배출된 한국근대화단의 김은호, 이상범, 노수현, 장우성, 김기창 등의 작품들과 해외 유학파 및 국내작가들에 의해 형성된 서양화단의 여러 대표작들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학예연구원의 설명과 함께 <근대회화: 대한제국에서 1950년대까지>를 관람하며 문화·예술적인 교류를 통해 단단하기가 쇠와 같고 아름답기가 난초 향기와 같은 우정을 나누고자 했던 이화여대의 서화창작모임 '금란목회'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당시의 대표 서화가들을 초빙하여 스승으로 삼고, 김활란을 비롯한 이화여대 교수들을 주축으로

발족한 ‘금란목회’의 활동을 통해서 서화의 창작과 전시는 물론 감상과 같은 문인(文人)문화의 의고적 행태가 해방 이후, 196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찾아볼 수도 있다.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작품을 제작하고, 서로의 작품에 제발(題跋)을 남기는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금란목회’의 뜻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에 이화 동창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전시와 연계된 학술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2015년 3월 20일(금) ‘근대기 서양화단의 전

개’ (조은정 | 미술사학자, 미술평론가), ‘금란목회 : 문인문화의 근대적 향유’ (김소연 | 이화여대 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있다.

■ 특별 체험 교육일정

오전: 10:30-12:00	12/13, 3/7, 3/28
오후: 2:30-4:00	12/27, 1/24, 1/31, 3/14

■ 문의 및 신청

※ 교육 문의 및 신청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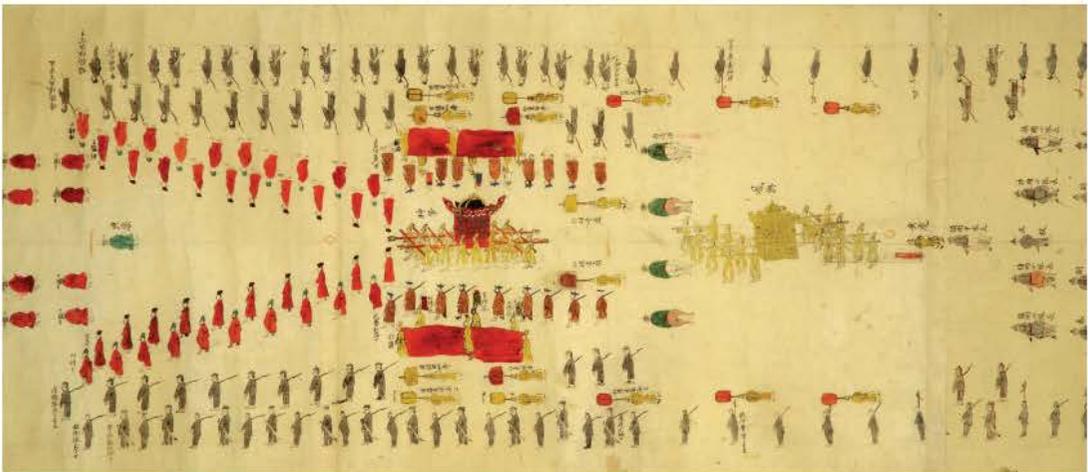
02-3277-4696

e-mail] museumedu@ewha.ac.kr

※ 전시 문의

3277-3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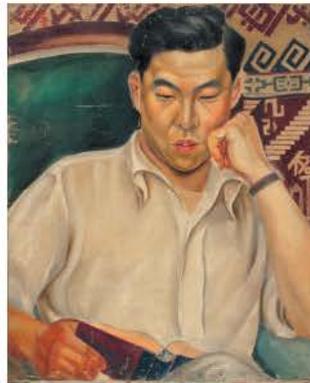
<http://museum.ewha.ac.kr>



명성황후발안반차도 明成皇后發靛班次圖, 19세기말, 51.4x2,198cm, 종이에 채색



대한제국동가도
大韓帝國動駕圖
석지채용신
石芝蔡龍臣,
19세기말 20세기초,
종이에 채색,
19.5x1,746cm



독서하는 친구,
설초 이종우
雪簾李鍾禹,
1926,
캔버스에 유채,
62.7x51.5cm

세계는 좁고 감염병은 가까이 있다 백신으로 이겨냅시다



김경효

의학83,

이화여대 의과대학장 · 의학전문대학원장

대한소아과학회 감염이사,

대한소아감염학회 · 대한백신학회 부회장

2014년 2월 이후 서아프리카에 유행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다. 1976년 처음 콩고의 에볼라 강 인근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로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크게 발생하여 환자를 돌보는 의료봉사자도 감염되어 2014년에만, 현재까지 약 17,000명 이상 감염되고 6,000명 이상 사망한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이다. 그런데 이 병이 더욱 무서운 것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인 예방 백신도 아직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치료제 뿐 아니라 예방 백신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9년에는 ‘신종 플루’로 전 세계가 심하게 앓았던 일도 있다. 우리 이대목동병원도 몰려드는 환자분들로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병원의 진료 공간이 모자라 야외에 임시 건물을 만들어 환자들을 진료하였고 중환자실에는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말 많았었다. 다행히 급히 예방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는 ‘신종 플루’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좋은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

인류의 건강을 위해 인류가 이룩한 가장 훌륭한 성과 중 하나는 ‘백신’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천연두 백신으로 세계보건기구는 1976년 10월 26일 전세계에서 천연두가 박멸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었다.

소아마비라고 불리는 폴리오, 홍역, 풍진이 다음 박멸 대상 감염병이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B형 간염, 일본 뇌염, b형 인플루엔자 균에 의한 뇌수막염은 백

신 접종으로 현저히 줄었다.

잊혀진 감염병에 대한 무관심 다시 재앙될 수 있어

무서운 감염병이 발생할 때 인류는 이를 해결할 백신이 왜 아직 없는지 통탄해 한다. 그러나 실제 좋은 백신이 있어서 그 백신으로 감염병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 병을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백신의 고마움을 잊는다.

그래서 다시 잊혀진 감염병이 유행하게 되는데 최근 수년간 우리는 이를 경험할 수 있었다. 2010년 이후 영국과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홍역이 다시 유행하였다.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면역이 없는 사람들에서 발생한 것이다. 최근에는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홍역이 유행하여 많은 소아들이 사망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2012년에는 이웃 나라 일본에서 풍진이 유행하였다. 특히 임신 중 풍진에 걸린 여성은 태반을 통하여 태아도 감염시켜 지능 장애와 각종 중증 질환을 가진 선천 풍진 증후군 아기를 출산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를 여행하고 방문하며 급속한 교류가 일어나는 요즘 우리나라만 안전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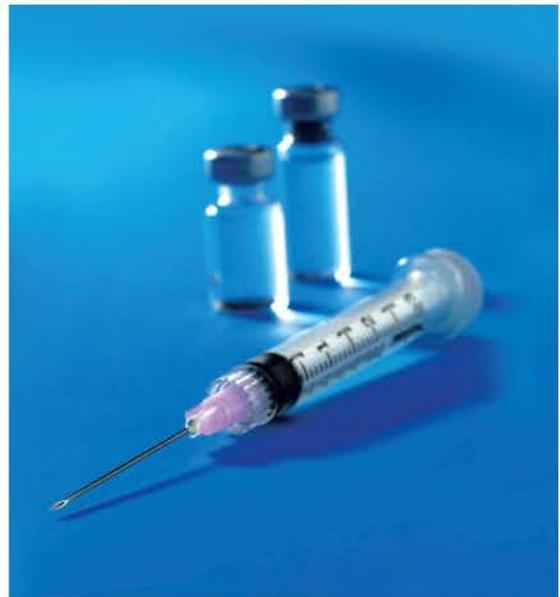
얼마 전 “열이 뽀뽀 나고 기침을 해서 아무 것도 먹지 못해요” 라고 와서 입원한 어린이를 진료하였던 적이 있다. 진찰해 보니 피부에 홍역을 의심할 만한 발진이 있어 부모에게 물어보니 최근 온 가족이 필리핀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였다. 홍역이 유행하는 곳을 다녀와 홍역에 걸린 것이다.

일본에서 풍진이 들 때는 피부 발진을 가진 환자를 볼 때 일본에 다녀왔는지 자주 묻곤 하였다. 세계에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늘 공부하고 있는 이유는 환

자를 더 잘 진료하기 위함이다.

백신 개발 통해 감염병 예방하자

인류는 오래 전부터 경험적으로 “한 번 감염병에 걸리면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병에 걸리지 않고도 병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의 면역계를 자극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것이 백신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병’ 처럼 인류를 위협하는 감



염병을 극복하는 것은 백신뿐이다. 아직도 새로운 좋은 백신 개발이 매우 필요하며 동시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좋은 백신을 잘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최근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은 2014년 12월 초 다국가 연구팀에서 개발한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으로 자원자들에게 초기 임상시험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발표된 것이다. 속히 좋은 백신이 나와 새해에는 온 인류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신앙 유산 전수할 부모 되기를 기도

손은영 (특교 02) 이재혁 (의사) 부부 선교사



한국에서 나이지리아로 오는 길은 좀 됩니다. 우선 가방 18개를 챙기고, 인천에서 런던까지 12시간 비행+런던에서 9시간 기다리기+런던에서 아부자까지 6시간 비행+아부자에서 조스까지 차로 6시간, 그리고 집입니다. 돌아오면 집에 이상이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워낙 오래되어서 한두 달만 비어있어도 바로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나

타나기 때문입니다. 외벽 안전등이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뒤에서 물이 새고 두 개의 물 저장 탱크에서 물이 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짐을 풀고 바로 시작되는 아이들 학기를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라고스에 에블라 관련 조사팀을 보내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내와 상의 후 SIM 리더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본부에 갔습니다. 네 분의 리더십을 만나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저의 설명을 들던 리더십들이 모두 같은 첫 번째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아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결국 저는 허락을 받고 라고스로의 조사팀에 합류했습니다. 다행히 라고스에서 에블라 전염은 잘 통제가 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국민의 손씻기’ 등의 기초보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긍정적면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민들의 궁금증에도 잘 설명하며 걱정을 덜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4년이나 나이지리아에서

사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교민 분들을 만나 인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분들이 오히려 그 위험한 조스에서도 사는데 에블라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위로해주어 함께 웃었습니다.

솔직히 나이지리아 오기도 힘들었는데 바로 라고스까지 가는 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많은 대화와 감정을 나눈 끝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수 있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의견의 일치로 보았습니다.

3개월 만에 만나는 병행 의과대학 병원 직원들이 많이 반가와 했습니다. 이곳 여론도 에블라 관련으로 좋지 않아 오지 않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들어오면 한국에 돌아가기 힘들다는 뉴스를 봤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가워한 진짜 이유가 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열심히 일하던 나이지리아 외과 의사 한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 후 전문의 없이 진료와 수술이 이루어지는 날이 많아져 외과 진료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돌아가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환자치료 잘하는 의사가 되자 마음먹고 왔는데 새로운 상황에 겁부터 떨려 납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함께 살며 일하는 외과의사는 저 하나인데 병원의 필요를 얼마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할수 없는 것에 분노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 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도 본부 행정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정부 규정들이 많이 바뀌고 에블라 상황까지 있어 지



혜롭게 대처해야 할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산지는 덩치가 엄마만 해졌고 산하는 벌써 2학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의사표현도 더 분명해지고, 속상한 것도 많아지고 때로는 엄마아빠를 위로하기도 하는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나 초보인 저희 부부는 잘못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전수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주세요

1. 나이지리아와 서부 아프리카의 에블라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2.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북부 나이지리아에서의 테러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3. 병행 의과대학 외과에 준비된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4. 온가족이 선교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기쁘게 하루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5. 산지와 사하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글. 이재혁(손은영동창부군, 선교사)

총동창회 소식



제13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제 13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4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San Francisco Hyatt Regency Airport 호텔에서 열렸다.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창들의 친목과 모교 발전을 위해 열린 이번 총회는 샌프란시스코 지회(회장 제갈숙경/관현 79)에서 주관하여 개최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조종남(의학 75) 회장을 비롯하여 김순영(약학 62) 고문, 박유나(도예 81) 부회장, 김효신(의학 84) 총무, 유영선(신방 75) 홍보부장 등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를 축하하며 득려하였다.

매년 북미주지회 이화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화인의 우정과 사랑을 나누고 자긍심을 가지는 이 행사에 올리는 15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 8월 제 15대 총장으로 취임한 최경희 총장과 이순남 이화의료원장, 오진경 대외협력처장 등이 함께 하여 '이화 DNA(Dream and Achievement)' 네트워크 구축과 Innovation

Ehwa를 선포하며 글로벌 이화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미주지역 동창들의 협조를 부탁하였다.

향후 총회 개최지는 2015년-아틀란타, 2016년-휴스턴, 2017년-뉴욕이다.

제1회 '이화사랑 글짓기대회' 작품집 발간

총동창회가 정보통신부 신설을 기념하여 2014년 4월 '이화사랑'을 주제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공모한 작품들을 엮어 '이화 그리고 나' 작품집을 발간하



여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 행사 참석 동창들과 내 외빈에게 증정하였다.

국내와 해외 동창들이 응모하여 총 41편이 담긴 '이화 그리고 나'는 "128

년의 역사를 가진 이화여대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으며 어떤 글은 앞으로 수기 형태로 발전해도 더 좋을 것"이라는 외부 심사평에 힘입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현정은(사회 76, 현대그룹 회장) 이사의 후원으로 작품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인천지회 '송년 모임' 참석

구랍 23일 인천 신도시 오라카이 호텔에서 열린 인천지회(회장/박명선, 무용 76) 송년모임에 조종남 회장을 비롯하여 김효신 총무, 이해양 지역부장 등 동창회 임원 6명이 참석하여 지회 동창들과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며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조종남 회장은 넓어지는 총동창회, 찾아가는 총동창회를 강조하며 최근 총동창회가 개최한 여러 행사에 젊은 동창들의 발길이 잦아지고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이화마크가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받은 지회 동창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한편 조종남 회장의 신축 기숙사 건립기금 후원 적극 참여 호소에 박명선 지회장은 지회 동창들과 상의하

여 내년 모임에서는 약정서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정기임원회

2014년 10월 8일 이화삼성교육문화회관 8층 총동창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정기임원회에서는 제 10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선정위원회 실사 예정 보고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 11월 24일에 개최할 '이화인의 밤' 행사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이화인의 밤'에 특별히 모교가 요청한 '이화비전선포식'을 함께 하는 방법 및 진행 등을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11월 12일 정기임원회에서는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석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화인의 밤 및 이화비전선포식' 행사 전반에 관해 구체적으로 토의 검토를 하였으며 구랍 10일 정기임원회는 '이화인의 밤' 행사 및 이화가족 성탄예배 평가를 하였다.

올해의 이화인 및 후원이사 오찬

2014년 10월 24일 학교법인 이화학당 행정동에서 '이사장 초청 올해의 이화인 및 후원이사 오찬' 행사가 있었다. 이날 행사는 모교와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있는 후원이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장명수 이사장께서 주최한 것으로 모교 최경희 총장, 총동창회 윤순희, 김순영 고문 및 조종남 회장을 비롯한 후원이사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선교부 소식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재학생들에게 떡기증

구랍 4일 오후 3시 모교 대강당에서 열린 '이화가족 성탄예배'에서는 재학생과 교수, 동창, 이화유치원 원아 등 이화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가진 성탄 예배로 더욱 은혜롭고 뜻 깊은 시간이었다. 양명수 교목실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과 음대 합창단과 박미자 교수의 독창 등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오대양 육대주에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동창 선교사들을 위한 헌금을 위해 총동창회 선교부원들의 헌금 송도 아름답게 올려 퍼졌다.

이 날 총동창회 임원들은 재학생들과 참석한 이화



가족에게 일일이 떡을 나누어주는 봉사를 하여 훈훈한 성탄 예배를 만들었으며 특히 선후배 동창들이 함께 자리하여 지나가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기도시간을 가진 뜻 깊은 행사였다.

제32차 단기선교 학생 환송예배



구랍 16일 다락방 전도협회 3층 예배실에서 제32차 단기선교 학생 환송예배가 김미순 총동창회 선교부장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김은경 동창이 찬양 인도를, 김명순 기독교학과 선교부장이 기도를 담당하였다. 모교 교목인 양현혜 목사의 '내 안에 있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말씀은 선교를 준비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이방인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선교의 시작을 이루어가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이어서 조종남 총동창회 회장의 단기선교 재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한 격려사와 신재경, 윤상수 선교사 부부(우크라이나)의 권면의 말이 있었다. 동창선교 부원들의 '거룩한 성' 특송, 김은주 성악과 선교 부장의 헌금송이 이날 환송예배를 더욱 빛내주었다.

2014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마치고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이화인들의 추억 되새긴 3박 4일

제갈숙경 (관현 79, 2014 샌프란시스코지회 회장)



2014년 샌프란시스코지회가 주관하여 개최한 총동창회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10월 30일(목) 부터 11월 2일(일) 까지 3박 4일 동안 Hyatt Regency SF Airport 에서 열렸다. 총회 주제는 '이화,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로 밤새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 많은 이화인들의 추억을 되새기고 예쁘고 향기로운 비누선물의 색다른 추억도 가졌다.

총회에 앞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Pre-Event 투어를 하였다. John Steinbeck 뮤지엄을 시작으로 Monterey 와 Carmel 그리고 Stanford Campus의 로댕 박물관 방문을 끝으로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었지만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넘쳤던 뜻 깊고 기쁜 시간이었다.

총회 첫날인 10월 30일에는 다른 주에서 오는 동창들의 호텔 체크인과 총회등록을 시작으로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이사회 모임이 있었으며 미주 전 지역에서 오랜만에 모인 많은 동창들의 교제시간도 있었다.

둘째 날 10월 31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파관광이 있었으며 합창연습, 종이접기공예, 줌바댄스, 정성애 박사의 건강강의가 있었다. 저녁 '총장과와의 만찬'에서는 Costumes Party도 있었다.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온 동창들의 복장 콘테스트는 흥과 끼를 돋우어 각자 입은 옷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박수와 웃음이 만찬장에 가득했으며 각자 장기 자랑을 하고 시상이 있기 까지 동창들은 대학시절로 되돌아가는 추억여행을 하였다.

셋째 날 11월 1일에는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각 지회장들의 보고와 예산 결산보고가 통과되었고 국제재단의 사업보고도 있었다.

총회 후에는 샌프란시스코 시내 관광을 한 후 이번 북미주 지회연합회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례만찬이 있었다.

\만찬에서 소개된 각 지회 동창들의 텔린트쇼는 매년 있어 온 것이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더욱 기발하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진행되었고 차기 개최지 지회인 아틀란타 지회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의 명장면을 연출하여 영광의 1등을 차지하였다.

넷째 날 11월 2일 마지막 날은 총동창회에서 제공하는 조찬으로 시작하여 일요일예배 후 '총장과와의 대화시간' 을 가지고 모교에 대한 궁금증과 해외 동창들의 희망사항을 대화로 나누었다.

이번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샌프란시스코 지회에서 11년 만에, 4번째 개최하는 행사로써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기대감과 두려움이 엇갈리며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한다고 하여도 부족할 것 같았다.

선후배들의 후원과 협조로 무사히 끝났지만 젊은 동창들의 많은 참여가 큰 숙제를 절감했다. 나 역시 그동안 소홀했음을 지회 행사와 다음에 있을 총회에 선배로서 후배들이 하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또한 이번 총회에는 예년보다 모교와 총동창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총회를 더욱 빛나게 하여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가나다순으로 게재

간호대학

회장/ 김진행(간호 73)

3회부터 49회까지 동창 단합대회 개최

2014년 10월 10일~ 11일 간호대학 단합대회에 동창 33명(미국 2명, 국내 31명)이 참석하여 1박 2일 동안 숙박을 함께 하면서 동창 간 친목을 깊이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3회부터 49회까지 동창들이 참여하여 첫째 날 영주시 부석사와 소수서원을 둘러본 후 박혜숙 동창의 도움으로 동양대학교 게스트 하우스에서 쾌적한 1박을 하였다. 둘째 날은 모노레일 관광과 청풍문화단지, 의림지를 관광하였다.



약학대학

회장/ 정용희(약학 75)

화합의 날 행사 및 정기 총회

2014년 9월 16일 51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정기임원회 및 기 간사회를 열었다. 정용희 회장은 총동창회 바자 참여와 소식지 발간 등 동창회소식을 전하였고 이경립 회장은 대학특성화사업인 CK사업에 약대가 선정, 8억 원을 받게 되어 약학교육을 글로벌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23일에는 지역부가 주관하는 제33회 화합의 날 행사가 용산가족공원에서 13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졸업 40주



년을 맞이한 25회가 점심을 준비하고 게임과 기별장지랑, 행운권 추첨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0월 27일에는 잠실롯데호텔에서 졸업50주년 재상 봉축하식을 겸한 제 51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250명이 참석하여 각종 상을 수상한 동창을 비롯하여 35회 약학과, 제약학과의 올해의 이화인에게 축하패를, 약대건축기금으로 1억1천만 원을 후원한 장현숙 고문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졸업50주년을 맞은 15회 동창 60명이 참석하여 동창회 발전기금, 주홍장학금, 약연후원회 후원금을 전달한 후 축하 합창을 하였으며 동창회는 선물을 전달하고 문화부는 답가를 하였다. 오찬 후 총회에서는 동창회 회칙에서 상임간사를 상임위원으로 하는 호칭변경안이 통과되었다. 31명이 참가한 11월 정기임원회에서는 10월 총회 결산보고와 평가 및 약대건축기금이 15억5천만여 원 모금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자연과학대학

회장/ 유영숙(화학 77)

치악산에서 즐거운 야유회 가자

2014년 10월 20일 가을 야유회 행사를 가졌다.



수학, 물리, 화학, 생물학과 동창 158명이 함께 참석한 가을 야유회는 원주 치악산으로 떠나는 당일 기차 여행으로, 이른 아침 청량리역에 모여 출발하였다. 원주역에 하차한 후, 치악산 금강송 길을 걸으며 구룡사에서 구름에 휘감긴 치악산을 즐겼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원주의 허브 팜에 들러서 피로를 허브 족욕으로 달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는 유명숙 회장이 준비한 푸짐한 선물로 행운권 추첨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디자인대학원

회장/ 장규순(디대원 89)

홈커밍데이 '디자인대학원 교류의 밤' 행사 개최

구립 4일 '2014 디자인대학원 교류의 밤' 행사를 국제교육관 지하1층 LG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3년 만에 선후배 동창과 교수, 재학생 등 280명이 홈커밍데이로 한자리에 모였다. 장운재 교목의 기도 인도로 시작하여 조재경 디자인대학원장의 인사, 장

규순 동창회장의 기념사 후 특강 시간을 가졌다.

안운정(안운정양스 대표, 대한패션디자이너협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곡미(LG생활건강 수석디자이너, 천안연암대학 교수, 연암에니웰대표 이사), 장규순(동서울대학교 교수, 한국디자인크리에이티브협회장) 동창의 행복 성공스토리는 재학생들에게 도전을 주고 자신감을 부여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레이저 영상 쇼는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가는 디자인 전문가로서의 디자인대학원의 전공을 소개하고 화합의 이미지를 제시하여 주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시간이었다.

김인성, 최종훈 교수의 사회로 행운권 추첨 및 베스트 드레서를 선발하는 시간도 있었고 각 전공별 선후배의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 이화인으로서의 공동체임을 확인하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메카로서의 디자인대학원을 확인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경영학과

회장/ 손향아(81)

재학생과 동창소통의장 '이경인의 밤' 행사

2014년 9월 15일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이경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경영학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재학생들과 사회 각 계각층에서 활동하는 동창 선배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재학생이 주축이 되어 성사된 뜻 깊은 자리였다.

예수를 훌쩍 넘긴 선배부터 기대와 설렘으로 찾아온 새내기 신입생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뛰어넘은 동창 선후배간의 만남은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였을 뿐 곧 담소를 나누며 웃음이 넘치는 화기에애한 시간이었다.

1부 행사에서는 김성국 경영대 학장의 축하 인사와 손향아 동창회장의 동창회 소개가 있었고 이화경영합창단의 노래공연과 80년대와 현재의 미팅을 재현한 영상 상연 및 써니 OST에 맞춰 재학생들의 댄스

공연이 이어졌다. 2부 행사에서는 재학생이 선배들께 하고싶은 질문 TOP3를 선정하고 이를 대화의 주제로 삼아 열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선후배가 모여 답소하는 각 테이블 사진 중 가장 인상 깊은 포토제닉 당첨자를 선정하여 경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제사무학과

회장/ 임은식(81)

총동창회 '이화인의 밤' 참석과 찬조



2014년 11월 24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이화인의 밤' 에 임은식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송유경 부회장, 이정은 고문, 박경임 전 동창회장과 고인미 동창, 온해영 동창 등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날 행사 참석을 위해 백지연, 신동희, 정덕임, 한지영 동창과 이비희 동창회 등에서 찬조를 하였다.

기독교학과

회장/ 정인숙(76)

박순경 최고령 신학자 출판기념회 축하



2014년 10월 16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깊은 우정과 멋진 추억을 나눈 오대산으로의 가을산행이 있었으며 11월 3일 모교 ECC 이삼봉홀에서 은퇴교수인 원초(原草) 박순경 박사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시간(구약 편)' 출판기념회에서 동창들은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은사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하였다.

92세인 박순경 전 이대 교수는 한국 기독교 최고령 신학자로 700쪽 분량의 방대한 연구서를 통해 구약 성서에 기초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질서의 차원을 분석하였다.

도예과

회장/ 한희선(84)

도림회 Open Studio 행사 가자

구랍 1일 '크레프트본 스튜디오(대표/ 도림회 12기 민경선)' 에서 도림회(조형예술대학 도예과 동창회) 동창 16명이 모여 스튜디오 탐방을 하였다. 이날 한희선(10기) 회장, 한주원(15기) 총무를 비롯하여 2015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재숙(12기) 신임 회장 및 최윤이(20기) 차기 총무 등이 함께 자리하여 18대 도림회의 정리와 함께 19대 도림회의 새로운 포부와 각오를 다지는 건설적인 자리를 가졌다. 또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20기~40기의 젊은 동창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작업실 운영 및 도자조형 작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며 선후배간의 따뜻한 정도 함께 나눴다. 도림회는 지속적인 오픈 스튜디오 행사를 통해 도예과의 전통을 다지며 그 맥을 이어나가는 뜻 깊은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독어독문학과

회장/ 이정화(74)

정기총회에서 '해석의 즐거움' 특강

2014년 11월 20일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3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 및 송년 모임을 가졌다. 처음 동창회에 참석한 후배들의 인사와 학교 소식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서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덕담을 나누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최민숙(71) 이대 교수의 '해석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의 강연이 있었다.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해석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해석의 오류 문제, 즐거움,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일상생활과 문학 작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여 참석한 동창 모두가 해석의 즐거움을 맛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트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총 73명의 동창이 참여한 가운데 오숙환 조형예술대학 학장, 서은애 이기영 교수, 이신호(72) 김귀주(74) 정선진(74) 함순옥(74) 이미연(76) 이은영(78) 전 동창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출품작 중 두 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는 제 33회 채연상 시상식에서는 함순옥(74) 김영주(10) 동창이 수상하였으며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성선옥(84) 동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9월 26일 한국화의 거목으로 꼽히는 남계 이규선 이대 명예교수께서 별세, 스승을 추모하는 제자들의 애도와 비통함 속에 발인식이 거행되었다. 또한 전통적인 화법을 계승하면서도 조형적 실험을 통해 현대 한국 화단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온 오용길 명예교수의 이대박물관기증작품을 전시한 '마음이 머무는 풍경'전이 2015년 1월 31일까지이며 '작가와 대화' 시간도 성황리에 열렸다.



동양화과

회장/ 이숙진(85)

제33회 채연전 개최 및 시상

2014년 9월 23일~28일 채연전(동문전)을 이화아

물리학과

회장/ 김혜영(83)

과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 발족

2015년 창립 6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물리학과 교수 및 동창회 임원진으로 구성된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4년 11월 24일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김동욱, 김태희 교수를 비롯하여 김혜영(83) 동창회장, 최은영(87), 이숙희(87) 총무, 조한규(86) 대표간사, 조연정(99) 서기 등이 참석하여 5월 개최 예정인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학과의 동창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과에서는 홍보 및 대외협력 위원장에 김태희 교수, 기념식 준비 위원장에 전건상 교수, 기념자료집 준비 위원장에 김찬주 교수를 선임하였고 동창회에서는 김선주(90), 김현애(90) 동창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였다. 창립 60주년 준비위원회는 기념행사를 마치는 날까지 정기모임을 가지고 상호 협력하며 행사 홍보와 동창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불어불문학과

회장/ 강숙희(74)

아미 동창회 정기모임 및 대천애육원 공연봉사

2014년 10월 2일~3일 생활환경대학 소극장에서 개최한 재학생들의 '맘마미아' 불어판 뮤지컬 공연에 강숙희(14회) 동창회장이 참석하여 꽃다발 증정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10월 15일에는 장혜경(13회) 전 회장의 양수리 별장에서 동창회 간사 초청 아미 동창회 정기모임이 있었으며 31일 아미동창 27회가 국제아동동기연합 후원 카페 '유익한 공간'에서 만 50세 생일을 축하하는 와인 바를 열어 자축하였다.

11월 1일 아미동창 24회가 결성한 중창단 '아미24'가 대천애육원을 방문 공연하여 애육원아들과 즐겁고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대천애육원은 김송자(4회, 2013년 아름다운 이화인상 수상)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50명의 원아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사학과

회장/ 한혜련(75)

간사회에서 기숙사 건립 기금 모금 독려

2014년 10월 23일 경상북도 영주 일대에서 가을 정기 답사를 하였다. 이번 답사는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가운데 동창들 모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들어간 듯한 멋진 시간을 보냈다. 9월 25일과 11월 27일에 각각 석련에서 간사회가 열렸다. 각 기의 간사들이 모여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 보고와 앞으로의 동창회 발전 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혜련 회장은 기숙사 건립기금 모금에 동창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11월 간사회에서는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윤용로 동창이 참석하여 선후배들과 인사도 나누고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활동한 소감도 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사회학과

회장/ 김자혜(74)

격려금 전달 및 '사회학의 밤' 행사

2014년 10월 13일 교문(1회 장의순/ 3회 김영복/ 11



회 강득희)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들이 현재 제주도에 통일 가족, 통일 여성에 대한 연구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스승 이효재 전 교수 자택을 방문하여 1천만 원의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11월 6일에는 '사회학의 밤' 행사를 열고 선후배 간의 멘토링, 재학생들의 국제단체 참여 프로그램 보고 대회 등을 실시하였다. 해마다 동창회 후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학의 밤'은 언론, 기업, 시민단체, 행정부, 정치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후배들이 함께 듣고 논의해보고 멘토링을 하는 유익하고 귀한 행사이다.

서양학과

회장/ 공은희(80)

98명 동창의 개성 넘친 '이서전' 개최

2014년 10월 29일~11월 4일까지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서양화가 동창회전인 '이서전'을 개최하였다. 1949년 1회 졸업생부터 2014년 졸업생까지 98명

이 개성 넘치는 작품으로 참가하였다.



언론홍보영상학부

회장/ 이경숙(76)

취업 간담회 개최 및 박물관, 미술관 투어 진행

2014년 9월 23일~25일까지 학부 재학생들을 위해 취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취업의 날개를 달자' 라는 타이틀로 진행된 이 행사는 동창회 예비회원인 3, 4학년 재학생들에게 선배들과 만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창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동창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전공영역에 따라 3일간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은 재학생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들을 제공하여 재학생의 호응도가 높아 동창회에서는 매년 취업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그 취지에 공감한 취업간담회 강사들과의 에프터미팅을 통해 공식적인 소모임을 만들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박물관 및 미술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6월 26일 세계장신구박물관의 현대도자기장신구 특별전

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췌대박물관과 이화동 작은마을박물관 투어(10월 15일), 리움 미술관 개관 10주년 기념 '교감' 전 투어(11월 26일)로 이어지고 있다.

영어교육학과

회장/ 이미옥(79)

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장학금 전달

2014년 9월 25일 과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250여 동창들과 학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ECC 이삼봉홀에서 가졌다. 제1부 기념식에서 최경희 총장의 격려사, 김성원 사범대 학장의 기념사, 김영주 사범대 동창회장의 축사, 최연희 학과장의 학과 연혁 및 교수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50주년을 기념한 장학금 기탁 순서에 동창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영어교육과 동창회장학금 6천만 원이 전달되었다. 특별히 영어교육과 교수장학금, 김영숙 명예교수장학금이 기탁될 때 동창들 모두 큰 감동과 감사의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매년 학과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고 차재순 교수의 자제(오일홍재단)께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그동안 과 발전에 헌신한 교수들께 동창을 대표하여 1기 김이태 동창의 '감사의 말'이 있는 후 만찬 및 제 2부 '동창의 밤'에서는 학과를 빛낸 동창 6명에게 '자랑스러운 이화영교인 상'이 시상되었다. 이어서 동창들이 준비한 오카리나연주, 독창, 이중창, 장고춤, 합창공연 등으로 50주년을 자축하였다. 1부, 2부 사회를 김선희(26기), 이보영(21기) 동창이 수고하였으며 이번 행사 준비에 공이 큰 최연희 학과장, 양혜순 교수, 동창회 각 기 대표들과 모든 동창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 뜻 깊은 행사였다.

조소과

회장/ 고혜숙(77)

2014년도 장학금 수여 및 동창회 활성화 방안 논의
역량 있는 후배들을 발굴하고 후원하고자 동창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2014년 동창회장 학생으로 조소과 3학년 박소운 재학생에게 100만원 을 수여하였다.

2014년 10월 17일 인사동 소라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안건 토의와 자유토론을 통해 동창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11월 1일에는 강화도 갑교2순교성지 부근에 위치한 최은경(79) 동창의 작업장 및 최은경 미술관을 탐방 하였다.



중어중문학과

회장/ 이호정(87)

많은 동창 참여할 문화행사 기획에 뜻 모아

2014년 11월 4일 추계행사로 과천 국립 현대미술관의 '오늘의작가상' 수상작 전시회를 관람하였다. 작품 감상 후 야외로 자리를 옮겨 만추의 단풍 풍광 속에서 당시(唐詩) 낭송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더욱 좋은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좀 더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모았다.



초등교육과

회장/ 박정서(81)

기대표 모임에서 '이화초등' 제20호 발간 기념

2014년 11월 28일 신촌 케이터틀에서 기대표 모임을 가졌다. 2014년 한 해 동안 있었던 모교 소식과 학과 소식, 동창회 행사소식을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특별히 초등교육과 동창회보인 '이화초등'의 제20호 발간을 기념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1991년 4월 초등동창회가 발족된 이래 회보 창간호

발간에 헌신한 여러 선배들부터 2014년 졸업생인 신입동창에 이르기까지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석 동창들은 이성은 교수의 2015년 70주년을 맞는 초등교육과의 역사에 관한 축하 인사말에 깊은 감명을 받기도 하였다.

이 날 각기 대표에게 배부된 제20호 '이화초등'은 기별모임을 통해 동기들에게 전달되거나 일부 우편으로 전달될 예정으로 회보 받기를 원하는 동창은 jspark4278@gmail.com으로 연락하면 받아볼 수 있다.

2015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 시행되었던 11월 22일에는 비가 오는 중에도 고사장이었던 무학중, 무학여고, 덕수고등학교 앞에서 교수, 재학생 30여명, 동창회 임원들이 수험생들의 빛나고 힘찬 미래를 기도하면서 사랑이 담긴 초콜릿을 전하며 응원하였다.



국내 해외 지회소식

가나다순으로 게재



남가주지회

회장/ 장계원(문정 76)

하반기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과 2015년도 회장 선임

2014년 10월 24일 20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상반기 진행 행사 보고와 하반기 행사에 관한 의논을 하였다. 이어 동창회 회계 보고 후 총동창회 회칙에 준해서 검토한 남가주지회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5년도 회장 선임은 현 장계원 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되었다.

9월 6회 임원회는 김주경 이사장 자택에서 가졌으며 11월 7회 임원회를 '7th Home Cafe' 에서 열고 송년 파티에 배부 예정인 동창회 주소록 발간, 장학금 신청 안내, 12월 14일 송년모임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한 가위대잔치' 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조선왕조 오백년 유물전을 관람하며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고 샌디에고 일일 크루즈 여행은 48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9월 26일~10월 3일 제 3회 녹미전이 열려 오프닝 리셉션에는 약 200여 명의 동창과 가족들이 참석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한편 9월 4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골프 대회에서 Champion Lynn Kim, Gross 1등 서희경, 2등 배연정, 3등 장민경 동창, Net 1등 최애리, 2등 장계원, 3등 김주경 동창등이 수상하여 축하를 받았다.

2014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34명이 참석, 작년에 이어 다시 최다수 참석의 기록을 세웠다.

뉴욕지회

회장/ 김기령(영문 81)

지회 50주년 축하 기념 연례만찬

2014년 9월 9일 정기모임에서 다가올 연례만찬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안내와 참석독려가 있었고 27일에는 뉴욕지회 50주년 기념 오찬회를 가졌다. 역대 회장, 이사장들께 50주년을 맞은 지회를 위한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며 지회가 어떻게 발전되었나를 듣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이 날의 이야기들을 웹과 회보에 실어 후배들이 지회의 발전된 역사를 알아가는 계기로 삼기로 하여 11월 뉴욕지회 50



주년 특별 회보를 발행하였다.

11월 14일 50주년 기념 연례만찬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있었다. 모교 총장 축하인사를 시작으로 동창회를 이끌어온 대선배에 대한 공로장 시상, 장학금 수혜 동창의 감사 인사, 음악 전공 동창들의 오페라 아리아와 피아노 연주 등으로 진행한 즐겁고 보람 있는 행사였다.

한편 미대 동창 전시회인 녹미전이 10월 1일~7일 맨하탄 'Elga Wimmer-Hyun Contemporary' 에서 열렸다.

준비하며 동창들 맞이에 분주하였으며 참석한 55명의 동창과 가족들은 추억의 이화교정이 담긴 영상을 보며 감동하였다. 이날 프로젝트 진행을 묵묵히 도와준 김혜영 동창과 부군, 재즈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한 병원 통역사 계춘화 동창, 플룻과 미니 스커트로 세련미가 넘친 송정숙 동창, 감동을 안겨준 바이올린의 서지원 동창, 김나영 동창의 소프라노 등이 어울린 이화인의 작은 음악회와 인공 조미료 없는 웰빙 보아표 식단은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즐겁게 해주었다.

뉴질랜드지회

회장/ 권명혜(교육 80)

추억과 우정을 함께 한 이화인의 밤

고국을 떠나 뉴질랜드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이화의 빛과 향기를 내고 있는 동창들이 한 자리에 모여 추억과 우정을 나누었던 이화인의 밤이 2014년 10월 27일에 열렸다. 권명혜 회장 이하 임원들은 청명한 날씨에 감사하며 시작 4시간 전부터



덴버지회

회장/ 임은혁(약학 72)

지회 창립 10주년 송년파티에서 새해 도약 다짐

해발 고도가 평균1마일, 1600미터로 Mile High City라고 부르며 연중 300일 이상 해가 드는 덴버에 속해있는 지회는 최근 콜로라도 한인 합창단(단장/정재연 동창)에 500불을 후원하고, 이화국제재단에 1,000달러를 후원했다. 구랍 4일 송년 파티에서는 이화사위 9명을 포함 27명이 참석하여 배꼽잡이 퀴즈와 경품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지회 창립 10주년을 보내고 새해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앞으로 지회는 모교 총장의 '이화 세계 명문으로의 재도약'의 꿈에 대해 회원 간의 인식을 높이고 크게 작게 도울 길을 열고자 한다.



런던지회

회장/ 문현수(체육 70)

학창시절 추억찾기 모임 가저

2014년 9월 15일 추계 정기모임 후 10월 3일 문현수 회장 자택에서 이화 학창시절 추억찾기 모임을 가졌다. 촛불로만 밝힌 정원에서 모닥불에 둘러앉



아 옛 이화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며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랍 2일 런던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 이대 음대 정경화 석좌교수교수의 '런던 컴백 바이올린 독주회'에 많은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런던 로얄 페스티벌홀은 세계적인 대 연주자들이 거처 간 곳으로 이날 연주회에서는 2천 5백석의 관중으로부터 열광적인 기립박수를 받았고 3번이나 앵콜을 받아 연주하였다.

멜버른지회

회장/ 안수산(영문 84)

2014년 송년 모임에서 새 회장단 선출

2014년 11월 12일 '궁' 레스토랑에서 2014년 송년 모



임을 가졌다. 이 날 2년으로 임기가 끝난 안수산 회장의 노고에 감사하며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고 이어서 2015년~2016년 회장단으로 회장 박성혜(기독 95), 부회장 박혜진(독문 97), 총무 신은미(사회 99) 동창을 선출했다.

몬트리올지회

회장/ 이채화(무용 76)

지회발전 위한 동창들 기부에 감사

2014년 11월 30일 일식집 향진에서 약 24명의 동창들과 가족이 모여 송년의 밤을 가졌다. 이채화 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교가제창으로 모임을 시작하였고 오랜만에 만난 선후배들은 저녁식사를 하며 반갑게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다. 이화 모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참석하는 동창과 가족들 그리고 이 회장의 재치있는 진행은 모임을 더욱 즐겁게 만들었다. 지회의 발전을 위한 동창들의 기부에 감사하며 내년에는 새로운 회장단의 선출로 동창회에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본다.

미네소타지회

회장/ 김성숙(사회 85)

정기모임에서 국제재단 장학기금 논의

2014년 9월 26일 가을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실버우드파크(Silverwood Park)에서 정기 동창회 모임을 가졌다. 미네소타 날씨답지 않게 따스하고 화창한 날씨에 감사하며, 가을에 어울리는 시



낭송 시간을 가지고 낙엽이 쌓인 길을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1월 21일 동창 모임에서는 멋진 켈트작품을 선보인 동창, 신앙경험을 들려준 동창들과 함께 훈훈하고 정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국제재단 장학 기금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합의결론이 있었다.

북경지회

회장/ 류순영(서양 79)

과일수확 체험,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다채로운 행사로 지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10월 8일 북경 창평사과농



원을 방문하여 사과, 배 등의 과일수확체험을 함께 한 후 BBQ 행사를 진행하여 수확의 기쁨과 화기에 애한 담소와 소통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0월 28일에는 베이징컨트리골프클럽에서 2014 동창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특별히 한국으로 귀국한 3명의 동창이 함께 참여하여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즐거운 라운딩을 가졌다.

세인트루이스지회

회장/ 정선주(성악 68)

‘진선미’ 모임 통해 17년을 한결같이

발족한 지 17년이 되며 30명이 등록된 지회 정기모임은 일년에 네 번 있다.

이화사위들이 가장 기다리는 12월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진행된다. 또한 매달 모이는 ‘진선미’ 모임을 통해 배꽃의 향기와 정을 느끼며 친목을 쌓아가고 있고 모임을 뜻있게 하기 위해 총동창회와 모교 발전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독서모임도 있어 2014년에는 한국어 번역판 ‘이화여대 국제재단 40년사-River of Faith’ (믿음의 강) 과 김국자(가정 66) 동창의 수필집 ‘들리는 것 들리지 않는 것’ 등을 모두 감명 깊게 읽었다. 더불어 세계 아동전도회 디자인 팀장인 최혜영(생미 86) 동창이 디자인한 ‘First steps Gods’ s plan for me’ 발간을 함께 축하하기도 했다.

총동창회 회비 납부도 지난 13년 동안 거름이 없었으며 총동창회 선교부 헌금, 대강당 의자(세인트루

이스지회 16개), ECC기금(5,000달러), 선배라면, 해외동창기금 헌금 등에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는 그동안 세인트루이스지회에서 이화국제재단에 설립한 지회 장학기금이 1만 달러(\$12,439.19)를 넘게 되어 지회동창 모두 기뻐하고 있다.

시드니지회

회장/ 황혜자(교공 76)

크리스마스 파티 겸 송년회 개최

30명의 선후배가 모인 2014년 마지막 동창 모임은 크리스마스 파티 겸 송년회로 11월 22일 시드니 Hyde Park 건너편에 위치한 웨라톤 호텔에서 하였다. ‘엄마의 바다’를 출간한 송홍자(국문 65)동창의 시낭송을 들으며 모두 이민 생활에서의 느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2년간 회장 황혜자(교공 76), 총무 임미경(영문 89), 회계 신은섭(법학 84) 동창이 지회를 위해 봉사하였고 황 회장은 6월 모국 방문에서 ‘선배라면’ 후원금을 직접 전달하였다. 이날 행운상



추첨 후 2015년부터 2년 동안 봉사할 새 회장으로 김 봉희(서양화 74) 동창을 선출하였다.

시애틀지회

회장/ 박정혜(체육 71)

불우이웃돕기 위한 바자회 개최

이화기금모음 바자회가 2014년 9월 20일 열려 많은 선후배 동창들과 남시는 chef의 선두지휘 아래 열심히 준비하여 2,600달러 기금을 모았다. 그중 일부를 사론의집(여성피해자), 동지선교(무숙자) 등에 불우 이웃돕기로 사용되었다. 10월 30일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6명이 참석하여 탈렌트쇼에서 '어이' 로 인기상을 받았다. 11월 20일에는 UW East Asia library 사서인 이효경 동창의 특강을 들었으며 매년 University of WA Jackson School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대학원생에게 주는 1,000달러 장학금을 Maya Kuhns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지회 동창들이 힘을 모아 모금한 5,000달러를 이화국제재단에 보냈다.



싱가포르지회

회장/ 현수정(생미 88)

소외된 여성들을 위한 자선바자회 열어



2014년 11월 6일 좀 더 의미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취지로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기 위한 자선바자회를 열었다.

회원들은 사용하지 않는 물건 뿐 아니라 직접 제작한 액세서리 등을 기부하여 뜻 깊은 바자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동창들의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진 자선바자회 수익금 2,500달러와 바자회에서 남은 의류 및 서적들을 SCWO(Singapore Councils of Women's Organization,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과 그 자녀들이 머물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운영하는 Star Shelter에 기부하였다.

www.scwo.org.sg/index.php/star-shelter

애틀랜타지회

회장/ 김정희(약학 79)

2015년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개최지로 선정

2014년 9월 모임에는 김임순 신입회원 환영과 김경원 총무 진행으로 경매 행사가 있었다. 성정순 교수의 이화100주년 기념 도자기, 김정숙 동창의 두유기계, 김정자 동창의 재클린 케네디 목걸이 귀걸이 세트, 김정희 회장의 옷, 김경원 동창의 한국도자기와 냉장고 탈취제 등 많은 물품들이 기증되어 즐거운 경매 행사가 되었다. 23일 막영에 동창 자택에서 애틀랜타를 방문한 김윤옥(보교 70) 이명박 전 대통령 영부인의 환영 다과회가 있었다.

10월 모임은 김아자 동창 자택에서 차희숙 동창의 생일축하와 조후자(의대 70) 신입회원, 15년 만에 다시 참석하는 최인옥(보교 87) 동창 환영과 인사가 있었다. 또한 총장배 골프대회와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13명이 참가하여, 의상부문과 장기자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용으로 1등을 하였다. 내년 총회 개최지로 선정되어 애틀랜타 홍보 영상소개와 연합회기를 받았다. 11월 모임은 샌프란시스코 총



회 참가 사진을 보며 생일축하와 선물증정을 하였다. 이번 총회에서 지회는 이화국제재단에 2014년도 장학기금 2000달러를 후원하여 총 6만 달러(\$60188.34)를 넘게 되었다. 2015년 총회 개최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올랜도지회

회장/ 신혜(섬예 92)

섬유예술 강의와 작품 관람

지회 회원 18명이 2014년 11월 11일 신혜 회장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올랜도 시청의 테라스갤러리를 방문하여 섬유예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작품을 관람하였다.



워싱턴디씨지회

회장/ 김지연(문정 89)

이화골프클럽과 문학인 모임으로 결속력 다져

이화골프클럽 다섯 번째 만남을 2014년 9월 10일 Pleasant Valley 골프클럽에서 가졌고 12일과 26일엔 이화 합창단이, 19일에는 이명지(영문 67) 동창 자



택에서 '수필과 시'란 주제로 권귀순 시인의 특강을 듣는 이화문학인 모임을 가졌다.

10월 3일 박민수(정외 89)동창이 재직하는 National Life Group 주최로 'For Stable Financial Structure'란 주제의세미나를 가졌다.

8일은 이화골프클럽의 여섯 번째 만남이 Stonewall 골프클럽에서 있었는데 이 만남을 위해 이화골프클럽의 손현숙(화학 83) 리더를 비롯, 김정순(영문 65), 정옥지(동양 65), 연복례(약학 70)동창이 큰 수고를 하였다. 11월 11일 이화골프클럽의 2014년 마지막 모임으로 Stonewall 골프클럽에서 가졌다. 많은 동창들의 후원으로 푸짐한 선물을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마지막 이화문학인의 모임을 가지고 수필 발표, 선물 증정, 2015년 계획 및 회계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

구랍 13일 총회 및 연말 파티가 Marriot Tysons Corner에서 열려 3주 전에 100석을 다 채우는 놀라운 이화인의 결속력을 보여 주었다. 이날 특별히 이

대부속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80년대에 8년간 음악 봉사를 하여 그 인연으로 90년대 모교 중강당에서 금요 음악 공연을 했던 김병철 밴드가 함께 함으로 더욱 흥겨운 시간이 되었다.

자카르타지회

회장/ 강혜경(간호 77)

'밥퍼사역'에 후원금 전달

2014년 10월 16일 가야성에서 19명이 참석하여 5번째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특히 강혜경, 한정수 동창의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를 겸하였다. 또한 유경희 동창에게 '밥퍼사역' 후원금 100만 루피아를 전달하였고 이은애(작곡 71)동창의 차남 혼인식도 축하하였다. 신입회원인 김선주(섬예 02), 이주연(조소 98) 동창의 환영도 있었다.



청주지회

회장/ 윤미숙(물리 83)

어려운 네자녀 가정에 이화의 따뜻함을 전해

2007년부터 매년 청원군 우록리 갈골마을에 사는

박관순씨 가정을 방문해 4자녀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해오고 있는 지회가 2014년 11월 14일에도 50만원을 전달하고 기도했다. 선천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어머니까지 루프스로 치료받고 있어 정부지원과 한국심장재단 그리고 청원군의 도움으로 각각 수술과 헌혈 등의 도움을 받아왔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제는 세 자녀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 경제적으로 훨씬 좋아졌다며 환하게 웃는 모습에 돌아오는 동창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토론토지회

회장/ 홍현정(피아노 82)

이화예술제 'Harmony of Ewha' 성황리에 개최

1980년대 후반 뜻 있는 몇몇 동창들이 녹미회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20여 년간 모임을 가지고 2014년 '이화예술제'를 열어 마침내 제 1회 녹미전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9월 5일 'Harmony of Ewha'

란 이름으로 미술과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이화인을 꿈꾸며 음대와 미대 동창들을 중심으로 행사가 개최되어 150여명의 이화 동창들과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선후배간 정을 돈독히 하며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10월 21일에는 2014년 마지막 핏볼회 모임으로 주님이 주신 각자의 귀한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이들과 나누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자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5일 녹스칼리지(Knox College) 170주년 행사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동창들이 모였고 6일에는 장상 전 총장의 '개인의 삶과 여성지도력에 관하여' 특강에 참석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화 송년파티를 11월 23일 Presidente Hall에서 150여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송년 파티의 테마는 크리스마스를 상



징하는 'Red and Green' 으로 강렬한 레드 의상과 간간이 섞여있는 푸르른 녹음 빛 옷들이 어우러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가득하였다.

홍콩지회

회장/ 정도경(사목 81)

홍콩에서 공부하는 이대 교환학생들을 격려



한유미(보건교육 90) 동창의 점심초대로 2014년 11월 13일 Aberdeen Marina 클럽에서 11월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홍콩학생들의 민주화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마비등 서민들이 직접 받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정도경 회장은 11월 1일 Pacific 클럽에서 KOWIN(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의 명문 약칭)이 주최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초청간담회'의 초청 연사가 문은명(조소 89) 동창임을 알고 홍콩 주제 이대 교환학생들의 참여를 독려, 8명이 참석하여 문은명 선배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국에서 유학한 문 동창은 현

재 'Moon 갤러리' 대표이며, 홍콩 예술발전국 예산 심사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27일에는 홍콩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대 교환학생 6명을 초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며 격려하였고 '이화동창 회보'에 소개된 제15대 신임 최경희 총장과 조종남 총동창회장의 '특별대담' 내용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며, 모교에 대한 사랑과 이화정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휴스턴지회

회장/ 백화정(교심 87)

미술관 박물관 관람으로 특별한 정기모임

2014년 하반기 첫 모임을 신지혜(식영 88) 동창자택에서 가졌다. 그동안 서로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오찬 후 김명지(의학 82) 동창이 우리 생활에 유용한 생활 속의 아이디어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10월 모임은 Menil 부부의 개인 컬렉션을 바탕으로 한 선사시대 유적부터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화, 조각 등을 망라한 휴스턴 미술계의 소중한 박물관인 Menil Collection에서 가졌다. 유민정(생미 87) 동창의 자세한 설명들로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11월 모임은 휴스턴 Museum of Fine Arts에 한시적으로 전시를 시작한 조선시대 유물전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 이국땅에서 우리 유물을 만나는 감정은 아주 특별했으며, 이날 관람 역시 유민정 동창의 전문적 설명으로 미술품들에 대한 이해를 많이 높일 수 있었다.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이화' 각오 다진 이화비전선포식 개최

2014년 11월 24일 '2014 이화인의 밤' 에서 이화비전선포식이 개최됐다. '이화인의 밤' 은 20만 이화동창 네트워크의 저력을 확인하고, 모교와 소통과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총동창회가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는 모교가 새롭게 수립한 '비전 2020: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 를 제시하고 세계 100위권 대학 진입의 목표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화비전 선포식' 이 1부에서 열려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최경희 총장, 장상 전 총장, 신인령 전 총장, 이배용 전 총장, 김선옥 전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장, 윤순희·김순영 총동창회 교문을 비롯해 이흥구 전 국무총리, 이용만 전재무장관, 윤중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민병주,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국장, 최환(주)한중문화



우호협회 회장 등 1,2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이화의 새로운 도전을 지지하고 축하했다.

황수경 KBS 아나운서(불어불문학·93년 졸)의 사회로 진행된 1부 '이화비전선포식' 행사는 이화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양명수 교목실장의 기도로 시작됐다. 이어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 분야 변혁을 선도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본교의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 의 비전과 4대 전략(▲조직·인재·인프라 혁신 ▲이화 DNA(Dream and Achievement) 네트워크 구축 ▲이화 글로벌 브랜드 파워 제고 ▲사회적 기여 및 나눔 확산)을 소개하는 역동적인 홍보영상 상영 후 최경희 총장이 참석자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이화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희 총장은 이화비전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화여대 제15대 총장으로 취임하며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이화' 를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주춧돌을 마련하고자 '세계 최고를 향한 혁신 이화' 의 비전을 선포한다"며 "비전 선포를 통해 이화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의 도전 목표는 양적인 팽창, 수치적 1위에 있지 않으며, 기독교 정신과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추구해온 창립 정신을 계승하며 명실 공히 세계 최고가 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화가 도전과 혁신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는 지금 동창들의 단단한 결속과 지지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이흥구 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은둔의 나라에서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이화여대는 지난 128년 역사를 통해 항상 세계화의 기수로 앞장서왔다”며 “이화가 꾸는 꿈에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이화비전 선포식 행사는 최경희 총장과 교수, 학생, 직원, 동문 대표가 함께 모교의 도전과 혁신의 의지를 반영한 비전을 직접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선언문에는 ▲끝없는 혁신 ▲담대한 희망 ▲따뜻한 사랑 ▲개방과 대화 ▲시대의 소명을 핵심으로 하는 5가지 다짐을 담았다.

이화 성탄예배

이화가 성탄 축하의 첫 문을 열었다. 구랍 4일 3시 대강당에서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성탄예배인 ‘2014 이화가족 성탄예배’가 열렸다. 모교와 총동창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성탄예배는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정의숙 전 이사장, 윤후정 명예총장, 최경희 총장, 조종남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이화의 교직원과 재학생, 동창, 지역 주민 등 2,500여명이 함께 참여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희 총장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오래 전에 계획해서 태어난 이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학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모금된 특별헌금은 총동창회가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세계 16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헌신하고 있는 이화동창 선교사 116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5 재판연구원 예비 합격자’ 최다 배출

모교가 예비판사인 재판연구원(로클럭, law clerk) 예비 합격자 9명을 배출해 국내 25개 로스쿨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서울대(9명)와 함께 최다 예비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최고의 여성법조인 양성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2014년 11월 5일 발표된 ‘2015년도 대법원 재판연구원 신규 임용계획’에 의한 선발 전형 결과,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출신 70명이 선발됐으며, 본교는 대학별 재판연구원 배출 순위에서 서울대와 공동으로 1위에 올랐다. 특히 모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정원 100명으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3분의 2에 불과한

대학별 2015재판연구원 예비 합격자 현황

대학명	합격자수	정원
이화여대	9(9%)	100
서울대	9(6%)	150
부산대	8(6.7%)	120
연세대	5(4.2%)	120
성균관대	4(3.3%)	120



적은 정원이지만 우수한 성과를 내 이화인의 파워를 과시했다. 모교는 지난 2013년도 재판연구원 임용에서도 6명을 배출하며 전국 로스쿨 중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자를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근무시킨 뒤 이 중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우수한 로스쿨 졸업생을 미리 교육하기 위해 2012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제인구달’ 박사와 함께 한
제14회 김옥길 기념강좌**

제 14회 김옥길 기념강좌 ‘희망의 씨앗(Seeds of

Hope)’ 이 2014년 11월 25일 이화인문과학원·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생명다양성재단 공동 주관으로 모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김옥길 기념강좌는 여성교육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모교 8대 총장(1961~1979) 김옥길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옥길 선생은 이화여대 총장, 문교부 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여성교육과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올해 김옥길 기념강좌에 초청된 제인 구달 박사는 영국 태생으로 1960년대부터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야생 침팬지들과 함께 지내며 연구를 시작, 40년 동안 침팬지를 연구해 ‘침팬지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다. 제인 구달 박사는 침팬지가 도구를 활용하고 나아가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 당시 ‘인간만이 도구를 사용한다’는 통념을 뒤집어 과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이날 강좌에서 제인 구달(Jane Goodall)박사는 자연과 인간,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송기정 이화인문과학원장(불어불문학 전공)의 사회와 최재천 교수(생명과학 전공)의 순차 통역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강연은독일에서 머물며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박영희 작곡가의 '생명의 나무(Lebensbaum II fur Kammerorchester)' 가 연주돼 더욱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생명의 나무'는 브레멘 국립예술대학 부총장을 역임한 박영희 작곡가가 본교 김옥길 기념강좌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자들에게 평화와 공존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작곡했으며, 이번 강연에서 초연되어 강연의 울림을 더했다.

사랑의김장나누기로 이웃사랑실천

모교는 학생처 사회봉사팀 주관으로 2014년 11월 7일 이웃 사랑의 이화정신을 실천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화구성원이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제 14회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교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김장을 담가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최정희 총장은 이날 직접 김장 담그기에 앞장서며 봉사활동에 참가한 이화인과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이화여대 김장은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왜 맛있을까 생각해 보니 그만큼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모교의 건학이념인 지역사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정신이 여러분이 만든 맛있고 건강한 김치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독려했다.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은 2001년에 처음 시작됐다. 2014년 14회를 맞이한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은 매년 열리는 이화 구성원의 사회봉사 프로그램으로, 이화인 걷기대회, 지역아동 초청 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개최됐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이번 행사로 3주년을 맞이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글. 이대기획처 홍보팀(총동창회 홍보부 정리)



동창소식

김양식(영문 54)

김양식 인도박물관 관장이 개관 3주년을 맞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40여 년 동안 인도에서 수집한 약 800여 점의 인도 전통직물 가운데 엄선한 간타 사리(Kantha Sari) 등 약 100여 점의 인도 전통직물 전시회 '인도의 직물과 자수-M. Gandhi의 가르침으로 실을 뽑아' 전을 개최하였다.

이숙녀(교심 62)

미국 내 한인작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알재단(AHL)의 취지와 정신을 한국에도 심고자 2014년 10월 15일 김옥지(69 생미) 동창의 작품전시를 모교 ECC 갤러리에서 열었으며 작가후원 기금 마련을 위한 11회 Benefit Gala와 visual art Competition을 10월 18일 맨해튼에서 개최했다.

조봉옥(영문 62)

미국 MoMA(Museum of Modern Art)에서 27년째 근무하며 한국어 오디오 서비스를 건의하고 오디오 프로그램과 안내도 감수 작업 등에 참여, 한국인과 MoMA 사이의 가교 역할은 한 조 동창이 2014년 9월 27일 영예롭게 은퇴하였다.

김영강(국문 66)

재미 소설가 김 동문(미국명/이영강)이 소설 '침묵의 메아리' 로 2014년 고원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11월 22일 시상식을 가졌다. 구성력과 문장력이 돋보인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최병화(체육 66)

웹브릭전, 사진전, 엽서전 등 여러 종류의 여행전시회를 10여 차례 열며 183개국을 여행한 최 동창이 2014년 8월 5일~10일 '문학의 집 서울'에서 세계의 풍물 전시회를 열었다.

김경자(약학 68)

구랍 9일~28일까지 양재동 트리니티 갤러리에서 햇불기념홀 갤러리 초대 개인전을 열었다.

정선진(동양화 74)

2014년 10월 1일~7일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황지선(조소 74)

2014년 10월 22일~26일 'MANIF 국제아트페어'에 작품을 전시하였다.

김영애(간호 75)

2014년 한국수필해외문학상 수상자인 김 동창이 수필집 '사각지대의 앵무새' 로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미주연합회의 미주펜문학상 수상자로도 선정되어 2014년 11월 8일 시상식을 가졌다.

김인숙(무용 75)

서울기독교대학교에 재직 중인 김 동창이 (사)한국발레협회 회장 및 대한민국 발레축제 조직위원장을 맡아 제4회 대한민국발레축제 및 2014 K-Ballet World(국제발레축제)를 개최하였다.

이승희(성악 77)

강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장인 이 동창이 예술음악 영재교육원 원장에 취임하였다.

조한희(과교 77)

청운문화재단 조한희 계룡산자연사박물관 관장이 2014년 11월 7일~8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2014 세계과학관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되어 '과학관교육프로그램의 역할과 동기부여 「꿈과 끼를 찾아내는 계룡산자연사박물관 CAMP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 발표를 하였다.

임정아(가정 78)

미주 수필가인 임 동창(미국명/이정아)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인 중 업적이 인정되는 작가에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가 수여하는 2014년 해외작가상 수상자로 상을 받았다.

정현숙(서양화 78)

일조원 갤러리에서 2014년 10월 1일~31일까지 개인

전을 열었다.

최은경(조소 79)

2014년 11월 1일 MANIF국제아트페어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신경림(장미 80)

미국 워싱턴주 아시만 메디슨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현재 시애틀에서 개업 중인 신 동창이 시애틀 Wing Luke Museum 주최 Bojagi: Unwrapping Korean American Identity 전시회에 참여하였다.

김효분(무용 82)

우봉이매방춤 보존회 부회장이인 김 동창이 구립 1일 대전시로부터 대전시립무용단의 신임 예술감독 겸 상임 안무자로 위촉받았다.

강애란(서양화 83)

통의동에 있는 갤러리 시몬에서 2014년 8월 28일~10월 26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나진숙(조소 84)

2014년 10월 8일~ 11월 16일 '나진숙 조원강 2인전'을 열었다.

성선옥(동양화 84)

'성선옥의 시선-떡사랑전' 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갤러리에서 2014년 11월 4일~ 14일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정경미(서양화 85)

양재동 온누리교회 내 햇볼트리니티 갤러리에서 2014년 10월 28일~11월 16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남연숙(도예 86)

미국 본토 심사위원에 의해 선정된 작품들의 Group 전시회 'Creative Hands' 가 광 대학 내 ART전시장인 Isla Center에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열린다.

송은주(서양화 86)

이천에 있는 Sky Aesthetics_Space 샘플스페이스

에서 2014년 9월 29일~10월 24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기유경(동양화 88)

2014년 9월 1일~10월 31일까지 보름산 미술관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류은경(동양화 88)

백운갤러리에서 2014년 10월 1일~12일까지 개인전을 열었다.

이수정(조소 88)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개인전을 2014년 9월 8일~21일까지 가졌다.

하승연(동양화 88)

2014년 11월 14일~23일까지 소허당 안동교회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정연(조소 89)

'김정연 개인전' 을 2014년 10월 8일~ 19일 가졌다.

이귀영(서양화 8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관에서 2014년 10월 10일~19일까지 창동 레지던스 입주작가전을 열었다.

정인숙(서양화 89)

2014년 9월 15일~10월 11일까지 '갤러리 아이 개관전' 을 열었다.

이주연(동양화 90)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Echo in space Shaping of Light and Color' 전을 2014년 10월 29일~11월 4일 갤러리 그림손에서 열었다.

고윤숙(서양화 91)

2014년 10월 3일~11일까지 삼청동 갤러리 한옥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류시숙(서양화 91)

갤러리 시몬에서 초대전을 2014년 10월 2일~8일까지 열었다.

김효선(서양화 92)

갤러리 가이아에서 2014년 10월 1일~7일까지 개인전

을 가졌다.

신혜(섬예 92)

미국 올랜도 시청 테라스 갤러리에서 직조와 자수 작품으로 세월호와 관련한 설치작업 'Masters of Mixed Media : Sunken Dream-가라앉은 희망' 전시회를 2014년 9월 23일~2015년 1월 9일까지 가졌다.

이희준(약학 92)

희곡작가인 이 동창의 창작뮤지컬 '미오 프로텔라(연출/ 이희준 동창 부군 김운기)'를 대학로아트원씨어터 3관에서 2014년 11월 8일~2015년 2월 1일까지 공연한다.

김민정(동양화 96)

성남문화재단 신진작가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 동창이 2014년 9월 9일~28일 성남아트센터 미술관본관 오페라하우스 B1에서 '현대인의 산수-빌딩 숲' 전시회를 가졌다.

이상의(동양화 96)

'무릉도원 Arcadia'라는 주제를 가진 옷칠화전을 장은선 갤러리에서 2014년 10월 15일~21일까지 열었다.

최고은(조소 00)

2014년 9월 7일~28일 LA Artcore에서 'September

2014 Exhibits' 전을 열었다.

이은선(동양화 01)

구립 3일~9일까지 '자연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57th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황지선(조소 74), 고혜숙(조소 77), 신은숙(조소 79),

이정미(조소 85), 지명순(조소 87),

김선미 호해란(조소 88)

7명의 조소과 동창들이 2014년 9월 17일~25일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제 6회 '화해와 화합의 한 일전' 그룹전을 가졌다.

심인자(조소 74), 김희경(조소 79), 최승애(조소 85),

김선영(조소 89)

2014년 9월 25일~29일 코엑스1층 AB홀에서 개최한 KIAF 2014 전시회에 조소과 동창들이 작품을 전시하였다.

김숙 사베리나(조소 75),

나영미 오주연 전선영(조소 90), 김희정(조소 93),

최고은(조소 00)

LA 녹미전을 2014년 9월 27일~10월 3일까지 LA의 LEE&LEE 갤러리에서 가졌다.

2015년도 '이화인 연회비 납부'에 참여해 주십시오

이화동창들께서 보내주시는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귀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연회비(삼만원)는 지로용지 또는 아래 계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100-009-592614 (예금주: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후원이사회비납부자명단

2014. 1 - 2014. 12 (가나다순 게재)

강숙희(불문 74) 1,000,000
 강혜경(특교 84) 2,000,000
 고승덕(보교 78) 1,000,000
 고은희(의학 78) 1,000,000
 권문희(간호 84) 2,000,000
 권미경(교공 87) 1,000,000
 권혜정(의직 84) 2,000,000
 금주현(수교 84) 2,000,000
 김경화(과교 84) 2,000,000
 김경희(교공 84) 2,000,000
 김다운(불어교육 84) 2,000,000
 김미순(기독 75) 1,000,000
 김미옥(서양 84) 2,000,000
 김순영(약학 62) 1,000,000
 김유겸(의직 70) 1,000,000
 김이경(문정 77) 1,000,000
 김정선(사회 84) 2,000,000
 김정아(컴퓨터 85) 1,000,000
 김진선(영문 78) 1,000,000
 김진향(간호 73) 1,000,000
 김태경(의학 84) 1,000,000
 김태미(교육 84) 2,000,000
 김행선(법학 84) 1,000,000
 김혜경(유교 84) 2,000,000
 김혜영(식영 84) 1,000,000
 김화숙(의학 71) 1,000,000
 김화연(성악 84) 2,000,000
 김효신(의학 84) 1,000,000
 나세리(수학 84) 2,000,000
 남성희(신방 78) 1,000,000
 남지영(영어교육 84) 2,000,000
 노혜연(컴퓨터 85) 1,000,000
 문희(약학 59) 1,000,000
 문담미(컴퓨터 85) 1,000,000
 문미란(법학 80) 1,000,000
 박경실(체육 78) 1,000,000
 박경임(식영 73) 1,000,000

박귀천(법학 95) 1,000,000
 박민선(의학 83) 1,000,000
 박소영(국제사무 84) 2,000,000
 박유나(도예 81) 1,000,000
 박정래(섬예 79) 1,000,000
 박혜진(가관 84) 2,000,000
 반주은(무용 84) 2,000,000
 방명혜(기악 67) 1,000,000
 방혜성(영문 82) 1,000,000
 배혜화(불문 77) 1,000,000
 백수경(신방 79) 1,000,000
 성선옥(동양 84) 2,000,000
 성시열(의학 81) 1,000,000
 손성혜(교육 64) 1,000,000
 송경애(경영 84) 2,000,000
 송선희(의학 77) 1,000,000
 안경희(초교 84) 2,000,000
 양수화(교대원 74) 1,000,000
 양영실(생미 84) 2,000,000
 양정진(컴퓨터 85) 1,000,000
 양현옥(제약 82) 1,000,000
 어미화(불문 82) 1,000,000
 오양자(의학 65) 1,000,000
 오혜숙(의학 78) 1,000,000
 우미형(의직 77) 1,000,000
 위성숙(약학 73) 1,000,000
 위승원(제약 83) 1,000,000
 유기숙(의학 75) 1,000,000
 유동원(의학 84) 1,000,000
 유영선(신방 75) 1,000,000
 윤석완(의학 76) 1,000,000
 윤순희(교육 65) 1,000,000
 윤용로(사학 84) 2,000,000
 윤현자(독문 84) 2,000,000
 이동광(영문 82) 1,000,000
 이미애(약학 79) 1,000,000
 이승희(의학 84) 1,000,000

이인숙(신방 84) 2,000,000
 이재옥(의학 79) 1,000,000
 이정화(독문 74) 1,000,000
 이종민(의학 80) 1,000,000
 이종진(조소 84) 2,000,000
 이주영(영문 75) 1,000,000
 이현숙(의학 64) 1,000,000
 이혜양(식영 79) 1,000,000
 이혜정(피아노 84) 2,000,000
 이호정(화학 84) 2,000,000
 이희호(문과 44) 1,000,000
 임유리(경영 01) 1,000,000
 임재영(의직 77) 1,000,000
 장민선(법학 00) 1,000,000
 전양숙(제약 84) 2,000,000
 정경선(장미 82) 1,000,000
 정다미(영문 84) 2,000,000
 정미경(의학 84) 1,000,000
 정승은(정의 84) 1,000,000
 정혜선(불문 84) 2,000,000
 조경원(교육 75) 1,000,000
 조영희(약학 84) 2,000,000
 조을순(초교 75) 1,000,000
 조종남(의학 75) 1,000,000
 조혜영(컴퓨터 85) 1,000,000
 주현경(체육 84) 2,000,000
 지선영(국문 84) 2,000,000
 차순자(의학 60) 1,000,000
 최경실(장미 84) 2,000,000
 최수주(식영 75) 1,000,000
 최영은(정책대 08) 1,000,000
 최정숙(영문 81) 1,000,000
 피상순(의학 84) 2,000,000
 한정운(심리 84) 2,000,000
 한희선(도예 84) 1,000,000
 황경수(제약 88) 1,0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4. 1 - 2014. 12

2014년 총동창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보내주신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창들께서 보내주신 연회비는 장학사업과 회보 제작 및 우송료 등에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납부자 명단 문의는 총동창회 사무실(02-3277-3386)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과학대학

문과

이윤재 (43)
이희호 (44)

국어국문학과

최정희 (56)
서정자 (57)

김영학 (58)
불명 (58)

임인진 (58)
한정숙 (59)

김은자 (60)
양중자 (60)

남을우 (61)
심양식 (61)

신효재 (62)
윤숙자 (63)

이춘지 (63)
박미혜 (64)

유혜일 (64)
박상혜 (65)

안정환 (65)
유정자 (65)

윤수영 (65)
이혜숙 (66)

정준선 (66)
임완숙 (68)

서경자 (69)
신언입 (69)

유원화 (69)
이명숙A (69)

이영옥 (72)
최숙희 (73)

최취수 (73)
전신애 (75)

한순미 (75)
백영자 (76)

신용선 (80)
하선아 (85)

이현 (87)
이수애 (89)

최은숙 (89)
임지현 (00)

이은지 (04)
이지원 (05)

박혜성 (08)
신은수 (08)

나문희 (10)

박수진 (11)
소아라 (13)

이수자 (16기)

중어중문학과

김정환 (86)
김용민 (87)

이호정 (87)
임지연 (05)

김정은 (06)
기은주 (08)

이한나 (08)
김민정 (09)

강문혜 (13)

영어영문학과

입정희 (41)
김영정 (50)

류수인 (50)
김양식 (54)

김순자 (55)
김승숙 (55)

백형진 (55)
천영애 (55)

이인주 (56)
함선영 (56)

곽경수 (57)
김훈삼 (57)

유정덕 (57)
김경숙 (58)

박재옥 (60)
최영희 (60)

최화형 (60)
공경원 (61)

김영순 (61)
김옥선 (61)

이행자 (62)
김정매 (63)

문영혜 (63)
박인자 (63)

임윤성 (63)
유명자 (63)

양정자 (64)
정혜주 (65)

최계자 (65)
서숙 (68)

이영숙 (68)
이유경 (68)

이인숙 (68)
김수영 (70)

김순희 (70)
고경원 (71)

김수연 (71)
방희정 (72)

김창영 (74)
백봉옥 (74)

정덕애 (74)
박현주 (75)

백혜련 (75)
김희자 (76)

이계호 (76)
김미량 (77)

문영희 (79)
이옥배 (79)

이해남 (79)
김영실 (80)

김종유 (80)
이승희 (80)

김승희 (81)
최정숙 (81)

고혜선 (82)
불명 (82)

이영진 (82)
임순희 (82)

전기옥 (84)
김미현 (86)

김영미 (87)
엄현진 (89)

오은진 (90)
조문선 (94)

권정아 (96)
최지연 (96)

윤수종 (97)
최지호 (99)

김희자
김지현 (06)

이지은 (09)
김윤아 (10)

곽지연 (11)
정부원 (11)

배효진 (12)
오지혜 (13)

이정호 (13)
불어불문학과

이소원 (61)
윤용범 (64)

조행자 (64)

성명숙 (66)
이조혜 (66)

엄선경 (67)
이경혜 (67)

이한순 (67)
정명자 (67)

김혜원 (68)
박종향 (68)

이원옥 (68)
홍미자 (68)

장혜경 (73)
정광자 (73)

강숙희 (74)
신덕영 (75)

배혜화 (77)
이윤옥 (81)

정보경 (81)
장영은 (83)

김은숙 (84)
정혜선 (84)

김이숙 (87)
김현주 (90)

조성아 (92)
박윤경 (97)

김수정 (01)
장현정 (08)

김현주 (09)
최예은 (13)

정다정 (14)
독어독문학과

민용자 (67)
오영란 (67)

이중희 (67)
최옥주 (67)

불명 (68)
조영주 (68)

위재숙 (69)
이금숙 (69)

권영희 (70)
최영민 (71)

차성은 (72)
최선희 (73)

유동신 (74)
이정화 (74)

윤현자 (84)
이숙 (88)

박연주 (05)
하남이 (98)

사학과

손경수 (60)
송은자 (60)

장원순 (61)
김학자 (62)

남상훈 (62)
노수자 (64)

김재향 (67)
변성숙 (67)

임계순 (67)
서정임 (68)

오옥환 (68)
나선화 (70)

민병서 (70)
김영주 (73)

신향별 (75)
정현주 (76)

김광민 (83)
윤용로 (84)

이은주 (97)
최하영 (14)

철학과

이지애 (87)
오유정 (98)

최지선 (00)
김지연 (12)

기독교학과

조길희 (63)
전민혜 (64)

김영화 (65)
이혜재 (65)

김봉희 (66)
이정자 (66)

장수자 (66)
류경자 (83)

조정자 (04)
김정언 (12)

정소영 (14)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김경숙 (56)
명광성 (57)

오명령 (57)
최명숙 (57)

박혜자 (61)
장원규 (66)

최금자 (66)

우행자 (69)
최영자 (69)

김영희 (70)
백영옥 (70)

서염미 (70)
서정희 (70)

이양준 (70)
이연표 (70)

이혜련 (70)
조백련 (70)

조복선 (70)
하정희 (70)

이명옥 (71)
남성희 (74)

최종혜 (76)
이문숙 (79)

정승은 (84)
이영미 (85)

정소영 (93)
김윤정 (07)

유정선 (09)
이은별 (09)

한지은 (10)
김하나 (11)

박소연 (12)
강수지 (13)

김다정 (13)
송희몽 (13)

김지은 (14)
박지영 (14)

윤홍선 (14)
임지연 (14)

전수현 (14)
정다미 (14)

양지

행정학과

최혜지 (02)
유셋별 (07)

양희진 (08)
이정아 (09)

김주혜 (13)
김미리 (14)

조운경 (14)
최수연 (14)

경제학과

홍귀인 (87)
장균주 (89)

김보람 (96)

박원영 (98)
 김보람 (08)
 서여경 (08)
 최애리 (10)
 유지연 (11)
 최은미 (11)
 권하진 (13)
 박재령 (13)
 박수연 (14)
 신가인 (14)
 여윤민 (14)
 조은경 (14)
문헌정보학과
 유애저 (65)
 최선희 (65)
 홍승진 (65)
 이민자 (68)
 정인숙 (68)
 백봉희 (70)
 이주식 (72)
 윤소영 (73)
 김이경 (77)
 고광옥 (81)
 정혜영 (84)
 이슬비 (06)
 임정은 (06)
 김혜진 (12)
사회학과
 장의순 (62)
 이안자 (63)
 최용소 (65)
 김덕신 (66)
 유혜향 (66)
 윤청자 (66)
 정행자 (66)
 한춘희 (68)
 유혜숙 (69)
 이효월 (69)
 민순기 (70)
 최진선 (70)
 김난숙 (74)
 김자혜 (74)
 문명재 (77)
 황성희 (81)
 박혜정 (97)
 최경세 (07)
사회복지학과
 김판숙 (58)
 오순희 (60)
 이정숙 (61)
 최태순 (62)
 조의숙 (63)
 최재명 (66)
 김일숙 (67)
 최수자 (67)
 양정애 (70)
 박영애 (79)
 김소영 (80)
 김혜순 (84)

심민지 (96)
 신은영 (97)
 신희주 (97)
 정유선 (02)
 김희원 (10)
심리학과
 박경숙 (57)
 황혜자 (57)
 백남희 (59)
 오봉림 (61)
 유남숙 (62)
 이예순 (62)
 이은주 (63)
 임혜영 (64)
 차정자 (65)
 홍기명 (68)
 정순자 (71)
 김정아 (72)
 송수희 (74)
 오숙희 (75)
 조상옥 (76)
 박미경 (80)
 김영주 (81)
 김연우 (84)
 한정은 (84)
 김선영 (09)
 김선경 (12)
신문방송학과
 이정민 (67)
 한명미 (67)
 김미령 (69)
 유영선 (75)
 오홍숙 (76)
 남성희 (78)
 이인숙 (84)
 주보경 (90)
 우정민 (91)
 류경민 (03)
 동은주 (10)
 노민영 (11)
 최수연 (11)
 이재은 (12)
 이해경 (13)
 조완영 (13)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김호순 (61)
 윤연상 (61)
 남선일 (64)
 신정수 (65)
 민경자 (67)
 최길남 (70)
 이숙자 (73)
 한재욱 (79)
 나세리 (84)
 한진영 (93)
 이파라 (06)
 김남희 (07)

김은선 (08)
 박나영 (08)
 송 은 (08)
 안영주 (08)
 이미정 (08)
 최예진 (08)
 유진주 (10)
 이주희 (10)
 김보람 (11)
 김은경 (11)
 김혜민 (11)
 안소영 (11)
 양효선 (11)
 신혜원 (12)
 엄수경 (12)
 임아람 (12)
 최윤정 (12)
 박신혜 (13)
 유세민 (13)
 이상희 (13)
통계학과
 박소희 (06)
 김소연 (13)
 김예슬 (14)
물리학과
 조옥주 (61)
 정경옥 (63)
 김경자 (68)
 김영선 (68)
 불 명 (75)
 윤수한 (76)
 이주현 (76)
 최소영 (84)
 이승미 (86)
 김동연 (91)
화학학과
 박원경 (56)
 강영옥 (60)
 김정남 (60)
 김종은 (60)
 신경숙 (61)
 김세명 (62)
 강성화 (63)
 양영자 (65)
 양수경 (67)
 이인희 (70)
 심송영 (73)
 배경화 (74)
 황복기 (83)
 성진희 (85)
 정승희 (85)
 국현아 (94)
 박효진 (97)
 최선윤 (97)
 손나운 (04)
 금지은 (04)
 최윤지 (06)
 최혜윤 (07)
 유혜진 (09)

전은지 (10)
 조예슬 (10)
생명과학과
 류 우 (60)
 최순경 (60)
 홍입선 (60)
 강래화 (61)
 서영숙 (61)
 정은자 (61)
 한승희 (61)
 황영자 (61)
 이혜숙 (67)
 윤영애 (68)
 변희숙 (73)
 차은희 (76)
 이해련 (80)
 최영희 (80)
 장선미 (07)
 정은선 (07)
 김재희 (08)
 박선영 (08)
 조가현 (09)
 남미리 (10)
 박현주 (10)
 이지향 (10)
 임계윤 (10)
 김은주 (11)
 한수정 (11)
 김유진 (13)
 이미경 (13)
 박병화 (14)
 정기주 (14)

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구정연 (12)
 김희원 (13)
 박여울 (14)
컴퓨터공학심화
 소혜리 (13)
정보통신학전공
 김민주 (05)
 이소희 (06)
전자공학전공
 강태경 (13)
 김자은 (14)
건축학전공
 홍경진 (05)
 김효정 (09)
 심미혜 (09)
 김소정 (10)
 노윤선 (11)
 강보라 (12)
 정혜인 (13)
환경·식품공학부
 김영선 (06)
 배상지 (08)
 서자은 (12)

음악대학
기악과
 윤연경 (49)
 주경순 (61)
 정청자 (63)
 최승현 (63)
 황경자 (63)
 안미자 (66)
 방명혜 (67)
 지순경 (68)
 나효선 (70)
음악과
 이현수 (56)
 심재명 (57)
 주영희 (57)
 윤미재 (65)
 김경옥 (91)
 김정은 (13)
건반악기
 원현정 (08)
 홍아라 (12)
 송재정 (13)
 김세은 (14)
 전은길 (14)
 홍주리 (14)
피아노과
 문병주 (39)
 양경희 (80)
 이혜영 (83)
 이해정 (84)
 한나이 (84)
 조성옥 (85)
 김미정 (90)
 구희진 (07)
 김화리 (09)
관현악과
 이순자 (59)
 김기순 (66)
 안진희 (76)
 이영서 (80)
 배종선 (90)
성악과
 남옥우 (60)
 이풍자 (63)
 이혜자B (65)
 석정자 (67)
 왕아자 (67)
 오혜명 (68)
 조현주 (68)
 오영주 (77)
 김화연 (84)
 이수연 (92)
 석혜원 (94)
 황은정 (04)
 김세희 (06)
 류 미 (07)
 이선희 (12)
 박소연 (13)
 김민지 (14)

작곡과
 이영자 (56)
 김옥자 (67)
 정양숙 (72)
 김시애 (75)
 이주희 (75)
 송민경 (02)
중고음악과
 심일수 (78)
 오재복 (79)
 최은희 (81)
 한기영 (81)
 조미아 (95)
 홍승희 (96)
한국음악과
 팽은아 (85)
 최완정 (86)
 정희자 (87)
 이혜구 (92)
 이정선 (94)
 권인옥 (95)
 김찬미 (12)
조형예술대학
동양화과
 문예 (75)
 박인숙 (78)
 박동미 (79)
 한승연 (83)
 팽은숙 (86)
 정유진 (12)
서양화과
 김효정 (77)
 공은희 (80)
 김미옥 (84)
 김선주 (89)
 변진혜 (89)
 주현경 (96)
 추성아 (09)
 이윤희 (13)
 위한별 (14)
조소과
 김정숙 (71)
 이해경 (78)
 서옥천 (81)
 최영선 (85)
 신경미 (07)
 김원희 (13)
섬유예술과
 신지원 (61)
 함인숙 (61)
 김인자 (65)
 최희경 (65)
 변정현 (67)
 김삼선 (68)
 박광혜 (68)
 장명옥 (71)
 임정미 (74)
 손경숙 (80)

이난숙 (80)
 봉지희 (85)
 이귀숙 (85)
 정학용 (85)
 손정연 (93)
 정윤선 (93)
 조정문 (07)
 하선주 (08)
생활미술과
 이영자 (63)
 이민정 (67)
 이인정 (67)
 조창연 (67)
 김미자 (70)
 이해선 (70)
 이미숙 (72)
 유용상 (79)
 이주형 (80)
 양영실 (84)
장식미술과
 박 실 (75)
 정경선 (82)
 불 명 (87)
 이연희 (92)
도예과
 진숙현 (77)
 오윤선 (78)
 문혜심 (80)
 박유나 (81)
 남연숙 (86)
 최은선 (06)
시각정보디자인
 김민정 (14)
패션디자인
 김수나 (07)
 나장은 (13)
회화·판화
 이큰아름 (06)
의류학과
 김지희 (13)
 김민선 (13)

체육대학

체육학과

조성환 (49)
 방봉세 (51)
 김정자 (56)
 유인희 (56)
 육완순 (56)
 최병화 (66)
 최춘자 (66)
 고선혜 (67)
 전성자 (67)
 문규순 (70)
 김은희 (72)
 김정숙 (78)
 이미나 (81)
 최정진 (82)
 김진이 (85)

송은희 (89)
 이윤숙 (94)
 반순영 (08)
 최지선 (13)
 박재은 (14)
무용과
 김정수 (70)
 조수형 (70)
 손경순 (77)
 이명경 (77)
 반주는 (84)
 김윤진 (96)
 서연경 (97)
 정혜진 (00)
 박진덕 (07)
 불 명 (07)
 김명미 (09)
 서진희 (09)
 안지영 (10)
 임혜민 (11)
 김가람 (13)
 문윤경 (13)
 불 명 (03)

사범대학

교육학과

정일례 (50)
 호재숙 (49)입
 사지숙 (55)
 김금순 (56)
 김수은 (56)
 김애자 (56)
 불 명 (56)
 전재순 (56)
 조병주 (56)
 이연숙 (57)
 임명숙 (57)
 권유봉 (58)
 박정혜 (58)
 정갑순 (58)
 권봉선 (59)
 김성숙 (59)
 김옥태 (59)
 김영아 (59)
 김은산 (59)
 김춘심 (59)
 심재완 (59)
 한임순 (59)
 김문자 (60)
 서천식 (61)
 오춘란 (61)
 유수현 (61)
 장경희 (61)
 이정숙 (62)
 박형자 (63)
 백영자 (63)
 이미자 (63)
 김광자 (65)
 심기중 (65)

윤순희 (65)
 김진숙 (67)
 원지영 (67)
 고명희 (68)
 김신지 (68)
 박경희 (68)
 박영자 (68)
 박정수 (68)
 신명자 (68)
 우소학 (68)
 이재옥 (68)
 장예순 (68)
 이을영 (69)
 김입순 (70)
 유승희 (70)
 김여옥 (74)
 채문숙 (74)
 조경원 (75)
 정미경 (79)
 이해숙 (80)
 김태미 (84)
 설건혜 (85)
 손은정 (97)
 강영희 (04)
 이정애 (13)
 김민정 (14)
 송은솔 (14)
유아교육과
 전윤숙 (61)
 정주자 (62)
 정명자 (68)
 김영주 (71)
 조한수 (71)
 문경숙 (74)
 장태옥 (87)
 유청옥 (88)
 박희경 (89)
 장문정 (94)
 서유현 (96)
초등교육과
 고정자 (65)
 이행자 (65)
 정경자 (71)
 김영재 (74)
 김세향 (74)
 조을순 (75)
 조진영 (77)
 박정서 (81)
 안경희 (84)
 김수중 (86)
 문희선 (97)
 배주은 (07)
 이해란 (08)
 조희준 (10)
 최보미 (13)
 이은지 (14)
교육공학과
 노정숙 (74)
 반주원 (76)

윤성애 (76)
 하경옥 (77)
 김경희 (84)
 박효숙 (84)
 권미경 (87)
 한은주 (91)
 김지연 (08)
 장희윤 (09)
 김민지 (14)
특수교육과
 최주희 (82)
 최현진 (88)
 이현정 (92)
 노영애 (06)
 박민경 (06)
 구주영 (07)
 이은선 (11)
 이정아 (13)
영어교육과
 계기원 (69)
 김영숙 (69)
 최종숙 (72)
 지덕옥 (75)
 김경화 (78)
 이 영 (78)
 이미옥 (79)
 강혜숙 (80)
 남지영 (84)
 전경옥 (87)
 허은지 (08)
 김가영 (11)
 김동은 (12)
 김재은 (13)
 강인영 (13)
외국어교육과
 이해완 (69)
 윤혜화 (80)
 임화영 (82)
 김다은 (84)
 김현주B (88)
 김선형 (96)
 서유정 (14)
사회과교육과
 박정복 (57)
 서금숙 (59)
 최용희 (60)
 김영희 (61)
 조연수 (61)
 홍삼랑 (61)
 홍승인 (61)
 강혜은 (63)
 박옥연 (65)
 양인숙 (66)
 최영자 (66)
 백진수 (68)
 성봉기 (68)
 조수자 (70)
 박영주 (70)
 부은령 (81)

엄명숙 (83)
 손혜경 (83)
 배현진 (04)
 노은언 (05)
 윤홍경 (07)
 양인명 (08)
 신미영 (12)
 이윤실 (13)
 김혜진 (14)
 한진아 (14)
과학교육과
 송옥자 (66)
 이숙자 (67)
 한옥희 (67)
 광혜경 (68)
 한태화 (68)
 주영미 (72)
 김영일 (75)
 오혜숙 (80)
 전해경 (80)
 박현경 (81)
 선해영 (83)
 김경화 (84)
 송현주 (87)
 손지현 (89)
 전희성 (93)
 박균하 (94)
 김서영 (96)
 박준희 (97)
 김세림 (03)
 이윤소 (10)
 김나연 (12)
 김나진 (12)
 정태진 (12)
 강은지 (13)
 오은주 (13)
 이유진 (13)
 정종희 (13)
 노명인 (14)
 정수지 (14)
수학교육과
 이영희 (78)
 김정열 (80)
 이정옥 (80)
 박진운 (83)
 금주현 (84)
 김소담 (07)
 정빛나 (07)
 박현우 (09)
 최민애 (09)
 이혜미 (12)
 홍수연 (12)
 홍세린 (13)
보건교육과
 장점숙 (69)
 조수영 (71)
 이주순 (73)
 김동희 (74)

이선숙 (74)
 장은숙 (74)
 박인순 (77)
 임찬희 (78)
 김혜경 (80)
 홍승희 (86)
 유흥심 (90)
 이사랑 (07)
 김진여 (11)
 최슬기 (12)
 김현아 (13)
국어교육과
 이은진 (12)
 이은진 (13)

법과대학

법학과

김정자 (56)
 윤명열 (60)
 정연순 (61)
 유희숙 (65)
 차명희 (66)
 박현순 (69)
 허광자 (69)
 윤혜숙 (70)
 최양숙 (70)
 박관순 (72)
 박선주 (73)
 김진옥 (75)
 조근배 (77)
 문미란 (80)
 김행선 (84)
 남윤희 (87)
 김은희 (88)
 최은영 (94)
 김태희 (96)
 팍은선 (01)
 조은아 (01)
 김지선 (02)
 이은정 (02)
 강혜숙 (03)
 김영주 (03)
 김은진 (03)
 심혜란 (03)
 불 명 (04)
 박정희 (06)
 송은지 (06)
 김지은 (07)
 이수연 (08)
 김경민 (09)
 노숙영 (09)
 유희아 (09)
 강수경 (10)
 김진경 (10)
 이수미 (10)
 김경란 (11)
 김순영 (11)
 신예경 (11)
 이해연 (11)

김민재 (12)
박한나 (12)
정우정 (12)
표혜리 (12)
나현나 (13)
문화경 (13)
문화정 (13)
박정빈 (13)
입여규 (13)
정혜인 (13)
최원지 (13)
유경재 (14)
이정은 (14)

경영대학
경영학과

입혜옥 (74)
정중자 (74)
김영선 (78)
문수정 (84)
김반지 (91)
구성원 (95)
이주연 (97)
구효정 (01)
권건하 (03)
김새련 (05)
이소영 (07)
황우리 (07)
황성희 (10)
문지현 (11)
이혜민 (11)
신유현 (13)
이미연 (13)
장혜진 (13)
이가영 (14)
이은혜 (14)

국제사무학과

입은식 (81)
이미애 (89)
양현경 (90)
전수아 (06)
김애진 (10)
윤희선 (11)
이유림 (12)
전성미 (13)

의과대학

의학과
박숙정 (51)
박명숙 (53)
송혜련 (54)
김순희 (59)
송애완 (59)
이창학 (61)
우복희 (63)
박경희 (64)
이현숙 (64)
배민자 (66)
이규현 (68)
김상숙 (70)

주문희 (70)
김혜진 (71)
박숙자 (72)
이영희B (73)
유경화 (74)
최금자 (74)
배순희 (75)
이경자 (75)
이덕용 (75)
정순미 (75)
조종남 (75)
황임령 (76)
김경한 (77)
김정혜 (77)
이순남 (78)
이진숙 (78)
이영혜 (80)
최신영 (80)
입선영 (82)
김효신 (84)
피상순 (84)
최은진 (88)
유진아 (93)
문상애 (95)
이신우 (96)
배기선 (99)
태정현 (05)
이화병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유인숙 (58)
최옥희 (59)
전응조 (60)
오나미혜 (63)
윤순자 (64)
김진향 (73)
권제순 (74)
이금재 (75)
김선애 (80)
이희숙 (81)
최미란 (93)
배경희 (95)
최혜은 (98)
성은정 (09)
이주은 (10)
김슬기 (13)
차미나 (14)

약학대학

약학과
문은선 (49)
이항구 (50)
김경원 (51)
김순자 (51)
신경희 (51)
전예실 (51)
최귀패 (51)
한사숙 (51)

고영수 (52)
옥선옥 (54)
오춘환 (55)
박찬옥 (56)
박홍순 (56)
한용희 (56)
김원숙 (57)
김정순 (57)
이무경 (57)
이정경 (57)
이정란 (57)
최규엽 (57)
한영숙 (57)
허인진 (57)
홍정옥 (57)
곽순덕 (58)
김진숙 (58)
문예자 (58)
김정알 (59)
문희 (59)
민병옥 (59)
서봉숙 (59)
신가균 (59)
윤혜숙 (59)
이계남 (59)
이옥순 (59)
황동수 (59)
고순환 (60)
김보근 (60)
김형래 (60)
문순이 (60)
박난서 (60)
변양자 (60)
유경숙 (60)
유선경 (60)
이옥순 (60)
이종섭 (60)
이주화 (60)
장현숙 (60)
정휘숙 (60)
최혜경 (60)
한영숙 (60)
강애삼 (61)
고경희 (61)
고화영 (61)
김덕희 (61)
김옥녀 (61)
김춘숙 (61)
배형진 (61)
윤용봉 (61)
이혜숙 (61)
전숙희 (61)
허순영 (61)
김순영 (62)
김영순 (62)
차영화 (63)
허옥자 (63)
구신자 (64)
김기방 (64)

김정경 (64)
백정자 (64)
송후자 (64)
정태연 (64)
정영자 (65)
최영순 (65)
김희수 (66)
문혜자 (66)
박혜영 (66)
이강희 (66)
강원자 (67)
석귀덕 (67)
김초원 (68)
박순래 (68)
오세종 (68)
진영대 (68)
김덕길 (69)
김일희 (69)
박성숙 (69)
신정희 (69)
이위영 (69)
정인숙 (69)
박순희 (70)
신옥희 (70)
전병숙 (70)
박정아 (71)
고명순 (72)
김선희 (72)
신영숙 (73)
황선래 (73)
김유현 (75)
박민희 (77)
민명수 (79)
이미애 (79)
최길자 (79)
지선옥 (83)
김준희 (84)
조영희 (84)
권진현 (05)
서희원 (10)
홍경자 (15회)

제약학과
이순이 (71)
장우현 (74)
오용순 (75)
구진숙 (76)
안혜영 (76)
손무인 (78)
김영미 (79)
김혜연 (80)
이은주 (95)
조서희 (95)
최지연 (04)
이동은 (07)

이혜자B (46)
김임순 (49)
이신덕 (57)
김옥진 (58)
김숙자 (59)
이선종 (60)
전은수 (60)
구자숙 (61)
김문숙 (61)
김효영 (63)
박영혜 (63)
박혜경 (63)
박옥재 (63)
이영예 (63)
김길수 (64)
김용자 (64)
윤송자 (64)
예경혜 (64)
박정아A (65)
오매성 (66)
윤춘자 (66)
이갑희 (66)
조규화 (66)
박순자 (67)
최민자 (67)
김대순 (68)
배계현 (68)
유춘미 (68)
임혜숙 (68)
이근옥
가정관리학과
이재희 (69)
김현숙 (73)
이은주 (74)
유명희 (79)
임정희 (79)
지영서 (80)
김연경 (84)
김선녀 (88)
서희원 (98)
의류직물학과
박윤정 (55)
장영희 (67)
이정민 (71)
이명숙 (75)
이숙희 (79)
최비숙 (80)
유정희 (83)
이정림 (84)
이향숙 (94)
한혜리 (09)
식품영양학과
박종오 (58)
계명혜 (63)
이선옥 (63)
장선재 (69)
우정애 (70)
전정숙 (71)
박경임 (73)

최수주 (75)
정은주 (77)
이혜양 (79)
최진자 (80)
김혜영 (84)
송향희 (87)
이윤경 (90)
김유진 (05)
김미정 (08)
나운진 (12)
장효빈 (12)

국제학부

국제학과
박소영 (06)
최수안 (06)
이효정 (09)
조운지 (11)
김이수 (12)
이현정 (13)
변혜진 (14)

대학원

채문경 (74)
유의순 (76)
오민수 (07)
박영숙 (08)
정혜경 (08)
김영자 (13)
김호정 (13)
이기영

교육대학원

양수화 (74)
박경희 (74)
부길린 (83)
송예진 (12)
안정주 (12)
정유진 (13)
김보현 (14)

국제대학원

박영금 (03)

정책과학대학원

오유경 (05)
정아영 (12)
신학대학원

통번역대학원

성효정 (09)
이현아 (09)
경영대학원

국제대학원

김순년 (99)
약학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유지혜 (06)

학과, 년도 미상
강민자
강신애

박혜경
 권문희
 권순주
 김 연
 김문자
 김보람
 김성희
 김수희
 김영순
 김우진
 김은경
 김은미
 김은서
 김정미
 김정윤
 김정혜
 김종부
 김종욱
 김지하
 김형경
 노 용
 노경혜
 노주연
 문서영
 박민선
 박민정 (27)
 박영현
 박옥연
 박지원
 백정은
 백인숙
 백형자
 불 명 (68)
 성진희 (12)
 손지희
 신수연
 신수연
 신정숙
 심세화
 안은주
 오인경
 유슬기
 유현경
 윤혜원
 이정혜
 이교은
 이명환
 이미옥
 이선경
 이수연
 이승신
 이애희
 이영자
 이원영
 이윤숙
 이윤우
 이윤혜
 이재순
 이정자

이정희
 이주영
 이주은
 임성희
 임진희
 장 선
 장경선
 장영은
 장재욱
 전정숙
 전기옥
 정선희
 정순희
 정지윤
 정지인
 장혜숙
 조선영
 조수정 (13)
 조청자
 지선미
 최구자
 최일연
 최효진
 한 솔
 허은주
 홍아영
 홍혜란
 이화동창회비
 후원이사
 기타불명
 (83명)
국내지회
 대구
 600,000원
순천
 600,000원
 김연자 (가정 59)
 강초례 (가정 63)
 조청자 (국문 63)
 조영숙 (화학 67)
 김경인 (동양 74)
 홍선란 (교육 74)
 유종희 (사학 75)
 고명선 (영문 76)
 최영자 (사회 77)
 김명석 (작곡 79)
 나연희 (경영 79)
 황정숙 (체육 79)
 서혜석 (영문 81)
 유숙영 (법학 85)
 윤지연 (간호 85)
 고선영 (불어교육 86)
 최정순 (신방 87)
 신경화 (조소 88)
 김수진 (경영 91)
 이유진 (섬예 95)
전주
 660,000원

차인자 (영문 50)
 전정희 (가정 57)
 유재신 (생명 59)
 이순례 (수학 59)
 김영원 (피아노 61)
 조덕이 (생명 63)
 이주자 (사생 67)
 김영희 (기독 69)
 장 숙 (교공 69)
 박숙희 (교공 70)
 이전숙 (의직 70)
 기영석 (국제사무 73)
 손숙희 (작곡 73)
 이현실 (심리 73)
 오경안 (법학 75)
 정혜숙 (영문 77)
 성현수 (영문 82)
 최희윤 (불문 85)
 정순임 (식역 85)
 나수영 (의직 86)
 안명옥 (심리 70)
 국제원 (사학 62)

해외지회

아틀란타
 (1,000불)
 1,085,097원
신시내티
 359,231원
클리브랜드
 400,000원
올랜도
 398,960원
내쉬빌
 (200불) 216,458원
세인트루이스
 (336불) 365,154원
 황선임 (사대 59)
 최경선 (영문 61)
 이수자 (가정 63)
 한정자 (교육 63)
 송경자 (약학 65)
 최길자 (화학 65)
 정선주 (성악 68)
 선재숙 (의학 72)
 강순희 (음대 73)
 양혜자 (심리 74)
 김혜영 (간호 79)
 이명아 (총을 90)
샌프란시스코
 528,964원
씨애틀
 (500불) 543,385원
몬트리올
 213,477원
멜버른
 123,737원
오타와
 300,000원

브라질
 500,000원
이태리 로마
 210,000원
독일, 오스트리아
 450,000원
홍콩
 2,601,697원
 HKD5,000불
 방혜자 (교육 66)
 이명희 (무용 68)
 정도경 (사복 81)
 HKD1,000불
 장은명 (영문 69)입학
 HKD200불
 임혜경 (신방 79)
 김성희 (관현악 81)
 임미도 (관현악 81)
 이수영 (영교 88)
 문은명 (조소 89)
 한유미 (보교 90)
 정경화 (관현악 90)
 한정화 (섬예 94)
 문지영 (전산 94)
 김수진 (도예 96)
 송수희 (신방 98)
 조혜지 (정의 98)
 홍혜연 (불문 99)
 안수진 (물리 99)
자카르타
 402,880원
일본
 450,000원
 김정숙 (체육 50)
 강연숙 (가정 53)
 지혜선 (약학 61)
 정정자 (신문 65)
 김용원 (문정 67)
 구덕자 (의학 69)
 정태영 (생미 69)
 장덕숙 (생미 69)
 고정희 (장미 74)
 정태경 (사복 75)
 심재영 (불문 75)
 정경미 (국악 87)
 이목미 (유교 93)
 김덕희 (도예 92)
 임혜선 (영교 98)
필리핀
 200,000원
북경
 500,000원
해외지회(불명)
 (500불) 543,385원

30년 만에 다시 부른 교가에서 깨닫게 된 '이화 정신'

최미영 (심리 83,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작년 7월 20일 짧은 한국 출장 중에 뜻밖에 모교 총장 이취임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모교의 더욱 발전된 모습을 타국 땅에 사는 후배에게 보여주려는 조종남 총동창회장님의 배려였다. 초청 행사로 여겨져서 조금 주저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총장 이취임식은 미국에 사는 나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였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하였다. 약간은 서먹한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 순서지를 펴 본 나는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다.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 봉독이 첫 순서로 시작되는 이취임식이기 때문이었다.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 미국에서조차 교회와 우리 한국학교 행사를 제외하고는 이런 순서지를 본 적이 없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4-5)

총동창회장님의 성경 봉독을 들으며 정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귀하게 창조하시고 이런 좋은 때에 태어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시고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셨을까를 생각하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김선옥 총장님의 이임사와 최경희 신임 총장님의 취임사를 들으며 하나님이 이화를 세우신 뜻, 그리고 나를 이화에 보내신 뜻을 다시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30년 전 이화에 다닐 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매 주 있었던 채플 시간을 도덕이나 철학 시간으로 이해하며 낯선 땅인 조선에 와서 조선 여인들의 교육을 위해 씨를 뿌린 스크랜튼 여사를 그저 훌륭한 분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그 분이 전하고자 했던 정신이 무엇인지는 깊이 이해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차츰 이화에서의 배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 헌신, 나눔의 '논 노비스 솔룸' (Non Nobis Solum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을 내 마음 속에 심어 주셨고 오랜 세월을 거쳐 가르쳐 주셨다. 아직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이화의 정신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이해되고 체득되어 왔음을 이화를 떠난 지 30년 만에 돌아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에서 깨닫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 이화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히 받고 이를 행하며 앞으로 내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위원고는 편집상 삭제한 부분이 있습니다(편집자 주)



축하합니다

졸업연도순, 가나다 순 게재



이선희(법학73)동창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보호관 선임

원로 법조인 이선희 변호사가 국가정보원 산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첫 인권 보호관에 2014년 10월 임명되어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침해 대처교육, 국정원 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을 실시한다.



김자혜(사회74)동창 국민훈장 목련장수훈

구랍 3일 제 1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자혜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 보호 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공주(제약77)동창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 회장 재취임

이대 약대 이공주 교수가 미국 IA에서 개최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여성과학기술인들의 국제교류 협력 단체인 세계여성과학기술인네트워크(INWES) 총회에서 제 4대 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윤금진(영교80)동창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선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한국학, 출판, 문화예술사업 부서장을 역임해 공공외교 전문가로 통하는 재단 워싱턴지사 윤금진 사무소장이 교류협력이사로 선임되었다.



윤주경(화학 81)동창 독립기념관장 선임

(사)매현 윤봉길 월진회 이사이며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이 제 10대 독립기념관장에 선임되었다.



이명선(보교 81)동창 여성정책연구원장 선임

여성이족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역임한 이대 보건의리학과 이명선 교수가 임기 3년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되었다.



유인화(교공 82)동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장 선임

‘최은희여기자 상’ 과 ‘올해의 이화언론인 상’ 수상자인 유인화 무용평론가가 2014년 11월 1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의 신임 센터장으로 선임되었다.



오명희(경영88)동창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회장 취임

이대의료원 오명희 사무국장이 2014년 11월 17일 전국대학병원 재무부서장협의회 회 추계 정기총회에서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천현순(독문92)동창 제 1회 ‘브레히트 학술상’ 수상

독일 쾰른대 문학박사인 천현순 동창이 2014년 10월 25일 한국브레히트학회 창립 25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제1회 ‘브레히트 학술상’ 을 수상하였다.



졸업연도순 게재



이야, 어머니 김양식(영문 54) 김양식 지음 / 월간문학

초이 김양식의 제 9시집.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어머니 생신날에, 어머니의 비녀, 어머니의 피눈물, 어머니의 재봉틀, 요즘들어, 어머니 성모길 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담은 시집이다.

파리의 하늘 아래 김계현(수학 80) 김계현 지음 / 니케박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월요일 관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파리에 3년간 거주하며 루브르를 100여 번 방문했던 저자의 결론이다. 오르세 미술관과 베르사유 궁전이 월요일 휴관, 루브르가 화요일 휴관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였던 남편을 따라 파리에서 살게 되면서 파리 구석구석의 살아 있는 보석 같은 정보를 담았다.

놀면서 배우는 읽기와 쓰기 이영자(유교 66)·이지현(영문 82) 주디스 쉬케단츠·몰리 클린스 지음 / 이영자·이지현 옮김 / 이대 출판부

5세 이전에 한글, 영문을 마스터한 아이들이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 후 어휘력, 독해력에서 뒤처진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고민 많은 교사와 부모를 위해 유아기 때의 연령별 읽기, 쓰기 지도책으로 유아가 각 성장 시기마다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경험이 앞으로의 읽기·쓰기 학습을 위해 필요한지 각 장마다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이선주(영문 86) 이선주·로버타 장 지음 / 이대 출판부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구한말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1903년 하와이로 간 초창기 이민자들의 삶과 한인사회 성장사를 저자는 20여 년간 백여 명이 넘는 한인 2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선별한 관련 사진 150여 컷과 함께 실었다.

은은이가 정끝별(국문 87) 정끝별 지음 / 문학동네

알 듯 모를 듯한 삶의 이야기를 품은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은 생과사의 소란스러우면서도 쓸쓸한 낮빛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통통 튀는 언어 감각으로 자칫 비루할 수 있는 삶에 반짝, 거울에 비친 별의 뽀함을 희망으로 비추는 시인 특유의 재주가 탁월하게 발휘된 시편들로 가득하다.

여성과 기독교 교육 백은미(기독 89) 백은미 지음 / 이대 출판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기독교 교육학 전통을 비판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기독교 교육학 이론을 새롭게 정립, 여성 기독교인들이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교육 방법, 영성교육 방법, 예전적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화유치원 역사이야기 이대 사범대 부속 이화유치원 지음 / 이대출판부

한국인을 위한 한국 최초의 유치원으로 1914년에 설립된 이화유치원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유아교육의 산실로서 발전해온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가에 의한 유아교육을 실천하며 한국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이화유치원의 선도적 역사와 교육정신을 접할 수 있다.



졸업연도순 게재



아아, 어머니 김양식(영문 54) 김양식 지음 / 월간문학

초이 김양식의 제 9시집.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아침부터 밤까지, 어머니 생신날에, 어머니의 비녀, 어머니의 피눈물, 어머니의 재봉틀, 요즘들어, 어머니 성모길 등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추억을 담은 시집이다.

파리의 하늘 아래 김계현(수학 80) 김계현 지음 / 니케박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은 월요일 관람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파리에 3년간 거주하며 루브르를 100여 번 방문했던 저자의 결론이다. 오르세 미술관과 베르사유 궁전이 월요일 휴관, 루브르가 화요일 휴관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였던 남편을 따라 파리에서 살게 되면서 파리 구석구석의 살아 있는 보석 같은 정보를 담았다.

놀면서 배우는 읽기와 쓰기 이영자(유교 66)·이지현(영문 82) 주디스 쉬케단츠·몰리 클린스 지음 / 이영자·이지현 옮김 / 이대 출판부

5세 이전에 한글, 영문을 마스터한 아이들이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 후 어휘력, 독해력에서 뒤처진다는 연구 결과 때문에 고민 많은 교사와 부모를 위해 유아기 때의 연령별 읽기, 쓰기 지도책으로 유아가 각 성장 시기마다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떤 종류의 경험이 앞으로의 읽기·쓰기 학습을 위해 필요한지 각 장마다 세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성장사 1903-1940 이선주(영문 86) 이선주·로버타 장 지음 / 이대 출판부

한국인의 미국 이주는 구한말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할 노동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면서 이루어졌다. 1903년 하와이로 간 초창기 이민자들의 삶과 한인사회 성장사를 저자는 20여 년간 백여 명이 넘는 한인 2세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선별한 관련 사진 150여 컷과 함께 실었다.

은은이가 정끝별(국문 87) 정끝별 지음 / 문학동네

알 듯 모를 듯한 삶의 이야기를 품은 시인의 다섯 번째 시집. 총 4부로 구성된 시집은 생과사의 소란스러우면서도 쓸쓸한 낮빛을 적나라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통통 튀는 언어 감각으로 자칫 비루할 수 있는 삶에 반짝, 거울에 비친 별의 껍질을 희망으로 비추는 시인 특유의 재주가 탁월하게 발휘된 시편들로 가득하다.

여성과 기독교 교육 백은미(기독 89) 백은미 지음 / 이대 출판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 교육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국내 최초의 연구서.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기독교 교육학 전통을 비판하고 여성의 시각에서 기독교 교육학 이론을 새롭게 정립, 여성 기독교인들이 일상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교육 방법, 영성교육 방법, 예전적 교육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화유치원 역사이야기 이대 사범대 부속 이화유치원 지음 / 이대출판부

한국인을 위한 한국 최초의 유치원으로 1914년에 설립된 이화유치원이 창립 100주년을 맞아 한국 유아교육의 산실로서 발전해온 그동안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전문가에 의한 유아교육을 실천하며 한국 유아교육을 이끌어온 이화유치원의 선도적 역사와 교육정신을 접할 수 있다.



세계 최고 향해 달리는 '이화' 위해 20만 동창 사랑과 열정으로 을미년 열다

2015년 모교 '이화'는 창립 129주년을 맞는다. 대한민국에 '여성교육의 최고 학부'를 세운 후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온 130년, 이제 세계 최고를 향해 나아갈 때이다. 총동창회가 '이화인의 밤'에 모교에 전달하는 일억 원의 후원금은 이날 참석한 동창들의 '이화사랑'의 증표이다. 을미년에 도 총동창회는 20만 동창들의 뜻을 모아 물심양면으로 모교를 후원할 것이다.



2014 고객만족도 전관왕 수상 (5개부문)

신한은행은 고객과 함께 올해도 활짝 피었습니다

금융의 마음이 고객을 향할 때 세상은 더 따뜻하게 피어납니다
한해 동안 주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않고
신한은행은 언제나 고객에게 행복을 드리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 1위
한국표준협회

 국가고객만족도 1위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산업의고객만족도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의서비스품질지수 1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글로벌고객만족도 1위
일본능률협회컨설팅

※ 복수초
강인한 생명력으로 눈을 녹이며 봄과 장수를 기원하는 꽃으로
꽃말은 '영원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금융브랜드 대한민국 1위, 세계 43위
The Banker誌 선정

제16회 대한민국브랜드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제19회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대통령 표창 수상
중소기업청 주관



에스노블은
다이아몬드와 큐빅의
차이입니다



반짝임만으로 당신을 현혹시키는 큐빅과 달리 다이아몬드는
색상, 투명도 등 까다로운 '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회사



다이아몬드처럼 까다로운 당신의 결혼, 에스노블이 함께합니다.